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사도행전 11장 24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6월 14일 (토) 제 1487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명목상크리스천 몰락... 확고한 성경적 교회만 생존

#### CT, 크리스천이 숙고해야 할 4가지 선교적 경향 소개

남침례교를 비롯한 주류교단들이 정체현상에 마이너스 성장을까지 보이고 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국교회는 견재하다. 그러나 미국교회의 성장이 멈췄다는 사실은 교회들이 반드시 숙고해야 하는 심각한 도전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단서가 된다. 선교는 항상 교회들이 어떻게 주변문화들과 연관 맺을 것인가를 고려하는 것을 연구해왔다. 다시 말해서, 크리스천들은 변화하는 시대상에 어떻게 반응해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불신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을 선교이자 전도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이미 미국교회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경향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고, 더욱 더 다가오는 세대에는 확실하게 자리잡을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한마디로,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은 사라지고 영성은 있지만 어떠한 종교적 소속이나 소속감 없이 살아가는 "Nones"가 점점 더 증가하며, 그 결과로 성경적으로 분명한 교회공동체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크리스천리티튜데이(CT)는 최근 이 경향들을 보도해 다음 세대를 위한 길라잡이를 분명하게 세워주고 있다(MissionTrends: 4 Trends for Churches to Consider: What trends must we consider when it comes to the state of the church in America?).

1. "크리스천들"이라는 말은 점점 덜 사용되고 3가지로 세분되어진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스스로를 크리스천으로 여기는 사람들 중 대략 75% 정도를 3가지로 나눠 정의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이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통칭해 불렀던 "크리스천"의 정의가 이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크리스천들(Cultural Christians):

문화적 크리스천들은 미국 인구 중 25% 정도에 해당되는데, 이들은 단지 자신들을 '무신론자'나 '유대인'이라고 불리우기보다는 '크리스천'으로 불리우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미국인이기에 크리스천으로 불리운다는 이유밖에

는 없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생활과는 거리가 먼 그저 문화적으로만 기독교 가치에 비중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

회중적 크리스천(congregational Christian):

이들 역시 미국 인구 중 2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헌신한 사람들은 아니다. 다만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회에 다니거나,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거나 그리고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교회에 간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크리스천으로 간주하고 살아간다.

확실한 크리스천들(Convictional Christians):

확실한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한 사람들로, 이들 역시 미국 인구 중 25%를 차지한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은 점점 비기독교인들이 되고, 미래에는 성경적으로 확고히 선 교회만이 남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 이 범주에는 단지 복음주의자들만이 속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의 삶에 의미가 되며 가치가 된다고 고백하는 크리스천들이 포함된다.

그렇다면, 현재 이러한 3가지 크리스천들의 경향은 어떠한가?

사는 목적과 가치가 분명하면 할수록 그 현상은 오래가는 것처럼 문화적, 회중적 크리스천들 너무 쉽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포기하는 경향이 많지만, 확실한 크리스천들은 오히려 안정되고 탄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다가오는 미래에는 크리스천이라는 정의는 "확실한 크리스천"에게만 사용될 수 있다.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에게도 사용되

겠지만 점점 더 그 사용빈도가 적어지고 확실한 의미가 요구되는 시대가 온다.

2. 명목상 크리스천들 증가하게 되고 "Nones"으로 변화된다.

기본적으로 문화적, 회중적 크리스천들은 "명목상 크리스천들"이다. 명목상(Nominal)이라는 말은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름" 또는 "이름만"이라는 뜻이다. 현재 점점 더 증가하는 크리스천들은 "이름만 크리스천"들이다.

(2면으로 계속)

### 리더십의 본질은 바로 "신뢰" !

#### 리더십저널, 레스 T 소르바의 도덕적인 지도자의 최고 덕목 소개

많은 사람들은 신문과 TV 뉴스를 통해 정치조직, 종교단체, 기업, 금융기관, 가정, 교육기관 등 권위와 도덕적 우월성을 가져야 할 조직들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행태들을 보며 우리는 그들의 리더십을 비판하다가 결국 냉소하게 된다. 우리 시대 최대의 위기는 리더십의 위기이고, 리더십의 최대 위기는 인격의 위기다. 우리는 더 이상 리더를 존경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리더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끌기의 예술"인 리더십에 대해서는 누구도 피해갈 수 없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레스 T. 소르바(Lesc T Sorba)는 작가이자 교사, 기업 간부 스카우트 담당자, 기업 CEO들의 리더십 상담자다. 그는 우리 시대 최대의 위기는 실용주의의 구덩이에 빠진 리더십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종교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목격되는 이른바 리더들의 비도덕적인 행태들 때문이다. 문제는 '도덕적 리더십'보다 '유능한 리더십'을 자연스럽게 우위에 놓는 실용주의가 지배하는 우리의 문화다. 리더십은 행동하는 인격이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노력이 없는 리더십은 궁극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에 소르바는 '신뢰(TRUST)'라는 대표 덕목을 제안한다. '신뢰'는 리더가 호호하는 공기로, '신뢰'의 의자에 앉지 않고서는 어떤 리더도 제대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리더들을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본 그의 결론이다.

#### 신뢰 쌓기는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건 빨라 신뢰 구축엔 끈기와 풍성의 세월 필요

1. 신뢰받는 리더는 시련의 도가니에서 탄생했다. 인류 역사상 영웅적인 리더십은 늘 극도로 괴로운 고통의 도가니에서 탄생했다. 에이브러햄 링컨, 루디 홀리아니, 마틴 루터 킹 등 미국에서 모범적인 리더로 꼽히는 지도자는 어린 시절부터 고난의 길을 걸어온 자들이었다. 그 고난 속에서 인격이 연단된 자들이다.
2. 신뢰받는 리더는 멘토의 도움으로 만들어진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역사를 살펴보면 리더십의 거목들은 모두 멘토의 영향을 받았다.
3. 신뢰받는 리더는 사심 없는 인격을 구현한다. 많은 리더들이 리더십의 희생보다 갈채에 열중한다. 많은 리더들이 올바른 일을 하는 것보다, 결과에 관심을 둔다. 실용주의가 도덕적인 리더십보다 우세한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의 리더십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리더에게 불신을 품게 됐다. 리더는 이타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

4. 신뢰받는 리더는 부름 받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리더로 부름 받았다고 생각하는 리더는 많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는 확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된다.

(2면으로 계속)



3면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KS원장)



8면

창조과학칼럼 최우성 박사 (창조과학선교회)



16면

우크라이나이야기들 오금옥 전도사(조지아로한인교회)



##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KCCCA)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귀하와 교회 위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오며, 본 미기총 제16회 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기로 하였사오니 대의원 여러분들은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전 미주 교회협의회 회장, 증경회장, 각 교단장, 증경교단장, 공인된 기독교단체장 선교기관 대표  
제목: 제16회 미주 기독교 총 연합회 정기총회 건

1. 주 제: "건강한 이민교회를 위한 진단과 처방"
2. 주제강사: 박희민목사, 윤사무엘목사, 김선배목사, 조갑진목사
3. 성회강사: 원팔연목사(전주 바울교회)
4. 일 시: 2014년 7월 8일(화) ~ 10(목)
5. 장 소: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 (714)446-6200, (714)446-6207(Fax)

6. 등록비: \$100(마감일 - 6월 25일)
7. 참 조: 공항에서 총회 장소까지 교통편을 준비하기 위하여 항공 일정을 등록과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출발 공항, 도착공항(SNA:존웨이공항 or LAX), 항공편명, 도착 시간,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총회후 출발공항(SNA 존웨이공항 or LAX) 및 출발시간 등을 은혜한인교회 김대섭행정목사(dsskim143@gmail.com)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미주 한인기독교 총 연합회 총회

대표회장 임형태목사/ 상임회장 김동욱목사/ 사무총장 황경일목사  
공동회장 한기홍목사(수석, 서부), 정인수목사(남부), 김종덕목사(동부), 유영일목사(중부)



### 시론

## 우리가 영원히 잊지 않기를! (May We Never Forget)



최창섭 목사  
(에베레셀 선교교회)

지난 5월 15일, 911추모박물관이 뉴욕에 개관되었다. 테러발생 13년 만에 월드트레이드센터(WTC) 자리에 정부 지원금과 시민기부금 7억 달러로 8년간의 공사를 거쳐 건물이 세워졌다. 지난 2001년 9월 11일 110층짜리 세계 무역센터가 비행기와 충돌, 붕괴되면서 약 3,000여명이 숨진 곳, 바로 그 현장인 '그라운드 제로'에 세워졌다. 박물관은 지상층과 지하층으로 나뉘어, 지상층에는 당시의 상황을 영상으로 상영하는 Auditorium이, 지상으로부터 21m 아래에는 2개의 대규모 전시실에 2만점 이상의 사진과 유품, 희생자와 유가족의 통화 및 지난 9호 담방자들의 교신 등 1,995건의 음성기록, 테러범들이 공황에 들어서는 장면 등 580시간 분량의 영상기록이 전시되어 있다. Memorial Hall에는 당시의 신문기사는 물론 TV방송과 개인 및 기관에서 수집한 현장 영상, 육성 녹음 등이 전시되었는데, 그 영상속의 경찰들은 다급했고, 불타는 건물로 뛰어 들어가는 소방관들의 뒷모습, 벽면을 가득 채운 희생자들의 사진, 실종자들의 유해가 안치된 공간의 벽면에는 테러의 아픔이 남기는 교훈이 새겨져 있다. "아무리 많은 날들이 지나도 시간의 기억으로부터 당신들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No day shall erase you from the memory of time).

뉴욕 쿠퍼버그 홀로코스트기념관(The Kupferberg Holocaust Center)이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졌다. 홀로코스트의 본뜻은 인간이나 동물에 대한 대학살 행위를 말하지만, 2차 대전 후에는 나치스에 의해 자행된 600만 명의 유대인 학살행위를 말한다. 2차 대전 후 독일은 히틀러의 민족우월적 발상을 배격하고 유럽평화와 공영의 길로 나가기 위해 철저히 과거사를 반성했다. 그리고 나치스의 최대 희생자였던 유대민족은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나치와 싸웠던 모든 나라에 홀로코스트기념관을 세워 나치의 전쟁범죄와 잔학행위를 고발하고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고자 했다. 현재 전 세계에 수백 개가 넘게 설립되었으며, 젊은 세대들에게 아픈 역사의 상처를 잊지 않도록 교훈을 삼고 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에도 잊지 말아야 할 역사적 교훈들이 많이 있다. 120년 전의 갑오경장 즉 일본이 한국 군대를 해산하라는 것, 한국에 주둔하는 다른 나라의 군대를 철수시키라는 것과 한국의 개혁정책을 친일파 관리를 통해 발표하게 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그 일을 지혜롭게 풀지 못해 결국 1910년 국권피탈로 나라를 일본에 빼앗겨 36년간 나라 없는 설움과 고통을 겪었다. 그 후에도 6.25전쟁을 통한 동족상잔의 비극적 교훈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남북통일의 기반을 닦아가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최근의 세월호 참사의 교훈도 잊지 말아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며, 국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아픈 상처를 더 이상 주어서도 안 될 것이다.

지울 수 없는 아픔은 한 개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정에도, 국가에도 나아가 교회 안에서도 있다. 그 아픔, 참사의 원인이 한쪽에만 있는 것만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고통스러운 상처로 남아 있기도 한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그 상처만 가슴에 품고 살 수만은 없다. 상처와 고통은 속히 털어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더 큰 상처와 고통이 나 자신을 완전히 망가뜨려 파괴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든다. 우리는 다만 여러 사건들을 통해 교훈을 받되 더 이상의 미움과 보복의 반복, 극단적 선택이 아닌 생명의 소중함, 상호 평화를 위한 양보와 이해,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책임과 부담이 있어야 한다. 참사와 고통을 안겨주는 원인 제공자들이 아닌 교회와 사회,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의 미래가 더 이상 비극으로 얼룩진 삶이 되지 않고 은혜와 축복의 삶, 사명 감당을 통한 감격의 날이 되도록 정직과 진실, 배려와 성실함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 예수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부상

## CT, 크리스천이 숙고해야 할 4가지 선교적 경향 소개

(1면으로 계속)

이들은 종교를 묻는 설문조사에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정의하지 않지만, 이들은 1년에 한두 번 교회에 나올까 말까한 사람들이며, 신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어떠한 일관되는 점들이 없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어떠한 삶의 변화나 지속되는 위임이나 헌신이 없는 상태로,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자신들을 "크리스천"으로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크리스천들(현재 크리스천 인구의 절반)은 점점 더 앞으로 몇 십년 후엔 소수 그룹으로 변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현재 명목주의의 붕괴를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명목주의의 붕괴를 경험 또는 목도하고 있다는 말은 이미 검증됐다. 자신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종교적 소속이나 교단이 없고, 아예

지하게 강구해야 할 시점에 놓이게 된 것이다.

3. 크리스천들의 문화대응방법론



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Nones"가 미국 인구에서 증가하면 할수록 문

## '문화적' '회중적' '확실한' 크리스천으로 분류 문화적 상황 따른 대응방법 다양한 모습 보여

자유로운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점점 더 "Nones"(영성은 있으나 어떠한 종교적 정체성이 없는 부류의 사람들, 현재 미국 인구 중 19.6%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로 진화되며, 앞으로 20-30년 후엔 미국 인구의 반절이 될 수 있다. 현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중 30% 이상이 자신들을 "Nones"이라고 부르고 있을 정도다. 한마디로,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이제는 "Nones"로 변화되고 있다.

이처럼 "Nones"가 증가하게 되면, 미국 문화에 미치는 크리스천들의 영향력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자신들을 더 이상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적어지게 되면 기독교는 점점 더 주변으로 밀리게 된다. 결국 현재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문화에 대응할 것인지가 진

들이 다양하게 증가하게 된다.

다가올 20년은 확실한 크리스천들이나 교회공동체들에게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 소수 그룹으로 미국 문화와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게 된다. 따라서 공격적으로 또는 열정적으로 문화와 대화를 나누는 크리스천들은 이를 "문화전쟁"으로 부르게 되지만,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이다. 반면에 문화 안에서 사람들을 섬기면서 수동적으로 또는 느슨하게 다가서는 크리스천들은 "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비쳐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문화에 반응하고 적응하며 도전할 것인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20년이 될 것이다.

성경적인 용어로, 우리는 적그리스도적인 문화 한 가운데에서 진정

화에 대한 크리스천의 영향력은 쇠퇴하게 된다.

이에 대한 응전으로,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성경 안에 천명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눈여겨봐야 한다. 먼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타난 베뢰아 사람들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즉 크리스천들은 반드시 성경을 상고하며 복음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면서 현재 문화적 상황들을 분별하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것인가를 전략을 다듬어 결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역대사 12장 32절이다: "잇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

는 우두머리가 이백 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따라서 크리스천들과 교회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잇사갈 자손처럼 시세를 알고, 정황을 파악하며,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복음을 문화에 선포해야 한다.

4. 명목주의의 몰락으로 확고한 성경적 교회들만이 더욱더 성장한다.

다가오는 시대에 크리스천으로 산다는 것은 더 이상 "값싼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닌 뚜렷하고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아니면 사도로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교회 역시 복음을 선포하고 성경적 진리를 강조하면서 사역을 하는 것이 교회공동체를 둘러싼 문화로부터 가장 선명하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들은 헌신된 교회 구성원들로 더욱 성장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교회들은 다가오는 시대에는 더 이상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다. 분명히 기독교는 문화에서 점점 더 소수의

견으로 남지만 좀 더 성숙하고, 성경적이며 선교적인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되는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으로, 앞서 열거한 4가지 경향들은 교회들로 하여금 결정적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어떤 교회들은 문화적 상황에 따라 불변하는 복음의 내용을 수정하도록 명령하게 될 것이고, 어떤 교회들은 오히려 "반-문화적 교회"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해 성경에 더욱 더 충실하며 복음을 신중난 방법으로 선포하는 교회공동체로 부상하게 될 것이다. 바로 후자의 교회공동체만이 현재 적그리스도 문화에서 온전한 희망이 되며 바로 미국교회의 유일한 진정한 미래의 모습이 될 것이다.

(1면에서 계속)

5. 신뢰받는 리더는 특권을 조심스럽게 행사한다.

지나친 리더십의 특권에 집착하는 기업 간부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대중 신뢰도가 종교자 판매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도자는 높은 원칙과 도덕성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6. 신뢰받는 리더는 추종자의 리더십에 투자한다.

신뢰받는 리더의 궁극적인 시험

은 추종자들이 바라지 않을 수도 있는 목적지로 그들을 데려가는 능력이다. 만약 이를 제외한다면, 리더가 교회, 가정, 정부, 직장에 남긴 유산이 리더의 자질을 평가할 것이다.

결국 신뢰란 쌓기는 오래 걸려도 무너지기는 금방이다. 신뢰 구축에는 끈기와 풍성의 세월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생 끝에 얻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수 있는 리더가 교회에도 많아지기를 바란다.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b>	
<b>편역국장서리: 유원정</b>			
<b>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Fax:(323)665-0058(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b>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대 표) (718)886-4424(편집국) Fax:(718)886-0074(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복음의 문화 대성경회

## 변하여 새사람되리라 (삼상10:6)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지금은 모여 기도할 때입니다.  
남가주지역 모든 교회들과 성도님들은 이번 집회에 참석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일시: 2014. 6. 27 ~ 29**  
 ● 27일(금) 7:30pm  
 ● 28일(토) 6:00am, 7:30pm  
 ● 29일(주일) 7:00pm

**특별찬양: 나성 순복음교회 성가대  
주님의 영광교회 성가대  
은혜한인교회 성가대**

**장소: LA주님의 영광교회**  
**주강사: 총재 이태희목사 / 전미주대표회장 한기홍목사 / 대회장 신승훈목사**

**주최: 남가주 민족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신승훈 목사)**  
**후원: 미주 기독교총연합회, 남가주 교회협의회,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 미주 성서화운동본부**

**주소: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eb: http://gcjc.org**  
**Tel: 714-392-9470/213-749-4500 Fax: 213-749-6700**  
**E-Mail: info@gcjc.org**

**이태희 목사**  
성복교회 담임

**한기홍 목사**  
은혜한인교회 담임

**신승훈 목사**  
주님의 영광교회 담임

# 벼랑 끝에 내몰린 교회성장, 그러나 성장의 동력은 남아있다!

## 리더십저널, 클리프사이드교회의 성장과 자체위협 간 긴장해소방안 소개 (5)

그 남은 교인들이 메이슨에게 버틸 힘을 주었다. 떠나는 장로들이 자기 가족들까지 꼼꼼히 챙겨 데리고 나간 반면, 남은 장로들은 메이슨 못지않게 교회를 통합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상황이 아무리 참담해져도 메이슨은 떠난 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말은 최대한 피했다. 교회를 위해 메이슨은 떠나는 사람들을 사랑으로 축복하려고 노력했다.

교인 수가 급감하자 재정 위기가 닥쳤다. 마침내 은행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 대출해주었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는데, 교회는 부채를 상환할 방법이 전혀 없었다. 메이슨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았다.

메이슨은 몇 년 전 클리프사이드에서 독립해 개척해 나갔던 뉴라이프프로시드 교회의 제이콥 리드 목사와 만나기로 했다. 메이슨은 뉴라이프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절로 미소를 지었다.

교회 로비에는 특별 예배나 여신도 성경공부 등 흥미진진한 새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포스터와 팸플릿이 가득했다. 메이슨은 뉴라이프교회 건물에 예전의 클리프사이드 건물과 너무 비슷한 것에 깜짝 놀랐다. 그는 로비 안쪽으로 들어가

제이콥이 머리를 기우뚱하며 물었다. “어떤 교회와요?” “제가 여기 온 이유가 그겁니다. 뉴라이프는 클리프사이드에서 분리해 나온 교회입니다. 같은 DNA를 갖고 있는 셈이죠. 우리 교인들은 뉴라이프를 가족 같은 교회라 생각하며 신

인들이 목사님을 진짜 목자로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계속 클리프사이드 교인이라는 느낌이 남아 뉴라이프교회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할 테니까요. 모두 새 출발이 필요합니다.”

제이콥은 메이슨의 말을 가만히 듣고



## 남은 교인들 통합 노력, 떠난 장로들 축복 노력 교회부채로 독립개척 교회와 합병 후 담임 사임

본당을 들여다보았다. 자원봉사자들이 주일 예배를 위해 접의자를 펼쳐 놓고 있었다.

그는 몇 년 전 교회를 구해달라고 자신을 찾아왔던 한 소형 교회 리더들을 떠올렸다. 그러나 정작 그 교회 교인들은 메이슨이 내민 도움의 손길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다. 메이슨은 얼굴을 찡그렸다. ‘우리 교회는 달라.’ 그는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는 제이콥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들어서자마자 제이콥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꼭 끌어안았다. 클리프사이드에서 벌어진 일을 이미 알고 있던 제이콥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메이슨에게 의자를 권하고는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제이콥이 물었다. “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좋을까요?”

“지난 몇 달 정말 힘들었습니다.” 메이슨이 털어놓았다. “새 건물은 은행에 돌려줄 생각입니다. 그동안 클리프사이드 교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겪었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와 합병을 고려 중입니다.”

리합니다. 인종 구성도 비슷하고요. 뉴라이프에서 클리프사이드를 합병하시면 어떨까요?”

두 목사는 잠시 더 대화를 나눴다. 골치 아픈 문제들이 많았지만 제이콥은 상당히 수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메이슨 목사님, 일단 저희 장로님들과 상의를 해보야겠지만, 제 생각에는 장로님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긍정적이고요.”

메이슨은 의자에 편안히 기대고 앉았다. “그런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네요.” 그가 말했다.

제이콥이 메이슨에게 짓긋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주일마다 팔씨름을 해서 누가 설교할지 결정해야 되겠네요.” “사실, 저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다.” 메이슨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무릎 위에 포개 놓았다. 자신의 결정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다. “합병이 마무리되면, 저는 목사직을 사임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메이슨 목사님! 클리프사이드를 지키는 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맞습니다. 우리들은 거의 전쟁을 치렀죠. 하지만 제가 사임하지 않으면, 교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최선이야.’ 메이슨은 생각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이콥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조만간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로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목사직을 나왔다.

‘이렇게 통합된 새 교회는 ‘남부의 새 들백’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건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제이콥과 뉴라이프교회가 두 팔 벌려 클리프사이드를 환영할 것은 분명했다. 메이슨의 교인들은 충만히 사랑받을 것이다. 밖으로 나오자 따사로운 햇살이 그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메이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메이슨 목사는 현재 다른 주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있다. 그는 클리프사이드에서 경험한 일들이 지금 사역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뉴라이프프로시드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 클리프사이드교회 건물은 다른 교회에 매각됐다. 히스패닉 교인들은 따로 독립해 예배를 드리고 있다.)

(끝)

## 원로칼럼



박중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 현대인과 교회

현대인 모두는 ‘결핍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다. 자원, 식량, 산소 등 삶의 기본적인 것들에서 가치, 정신, 신앙 등 형이상학적인 것들에 이르기까지 넉넉한 것이란 아무 것도 없다. 그러다보니 마음의 여유도 없고 삶의 여유도 없다. 그 결과는 뻔하다. 각박하고 살벌한 경쟁적 삶의 양상이 풍미하고 있다.

문제는 정신적이며 영적인 것들이다. 돈이 모자라면 아껴 쓸 수 있고, 허리띠를 졸라매면 어느 정도까지의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신적 빈곤이나 나아가 영적 결핍증은 해결의 길이 많지 않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결핍의 근원이 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를 들면 인간들이 마구잡이로 버린 산업 쓰레기나 화학 폐기물들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나아가 오존층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몸살하고 죽어가는 환경과 함께 인간도 죽어가고 있다. 문제는 인간의 타락한 심성이 그 주범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창조는 풍요로운 것이었다. 구약 성경, 창세기에 의하면 에덴동산의 정경은 미의 극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에덴동산의 진정한 의미나 가치는 경관의 아름다움만은 아니었다. 악이 없는 세상이라는 점이 그 동산의 심미(審美)였다. ‘주’도 아름다움이라고 한다지만 그러나 악이 미적 가치를 지닐 수는 없다.

인간의 악이 에덴동산의 환경을 파괴하기 시작했고 생명을 잃어버린 적막의 동산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환경 파괴의 역사는 산업화의 부산물만은 아니다. 이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던 창세기 3장에서 환경 파괴는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모든 빈곤이나 결핍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에서 비롯되었고 태초부터 시작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었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염려의 한계를 넘어 생존문제와 직결되기에 이르렀다. 경제 전문가들과 환경 연구자들 그리고 미래학자들은 이러한 심각한 국면들이 인간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데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되도다”(계6:6)라고 했다. 이것은 식량 가격 폭등에 대한 예언이다. 소말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는 매년 수백만 명이 기아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런가하면 지구촌 한쪽에서는 식도락을 즐기

고 향락 산업이 변창하는 모순이 전개되고 있다. 제아무리 내 것이라고 해도 내 멋대로 쓸 권리는 없다. 그것은 반사회적 작태일 뿐이다.

교회는 풍요로운 마음과 영혼을 일구는 터전이었다. 경쟁과 긴장과 연속되는 삶의 경주를 잠깐 멈추고 자신의 영성을 되찾고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는 쉼터다.

우리가 사회 현장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는 말들이 있다면 그것은 “모아라, 벌여라, 축적해라”다. 그리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뛰고, 달리고, 싸운다. 그러나 교회 창틀로 들리는 음성들은 “바르게 벌여라, 주라, 쓰라”다.

세간에 교회가 부를 축적하고 귀족화해 간다고 혹평하는 이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성격이나 생리를 모르고 만들어내는 억측일 뿐이다. 교회가 소유하는 부는 없다. 있다면 선교나 교육, 그리고 봉사를 위해 잠시 모아둔 성도들의 현금일 뿐이다. 만일 개인적으로 교회의 현금을 챙긴다든지, 사적으로 남용하거나 축적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사비비 집단지거나 탈을 쓴 위선자일 것이다.

차체에 교회가 너무 많다보니, 썼다 하면 교회라는 등의 비난에 대해 한 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술집보다는 교회가 훨씬 낫다는 것이다. 도대체 수십억씩을 들여 꾸미는 대형 술집이나 호화 유류장에 대해선 말이 없으면서도 교회만 유난히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에 거는 기대와 질의감 때문일 것이다. 그런 면에서 교회를 향한 사회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리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위상 정립에 배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회는 역사 현실 위에 그 몸체를 세우고 존재한다. 현실을 외면한다든지 사회의 아픔을 도외시하는 것은 교회 본연의 태도와 위배된다.

신앙의 힘은 각박한 마음과 삶 속에 윤택 유를 주입시켜 준다. 그래서 여유있게 넉넉한 마음을 불러일으켜 준다. 바울 같은 경우 “나는 비천과 풍부에 찬물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실토했다. 얼마나 멋진 삶의 자세인가. 그리고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그가 지녔던 신앙과 가치관 때문이었다. 인간이 향유해야 될 영원한 풍요를 지평선 위에서 찾는 것은 무모하고 어리석다. 영원한 것은 영원한 데서만 찾을 수 있다.

# 축

## 쉐퍼드대학교 학생모집

### “축” 쉐퍼드대학교 WASC인준

WASC란? 미 서부 지역 대학 협의회(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로서 UCLA, 스탠포드, UC버클리, USC 등 미국 서부 명문 대학들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쉐퍼드대학교는 이번 WASC인준(Candidacy)을 통해 이 대학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교우보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쉐퍼드대학교 신학대학은 WASC회원 학교로 미국 일반 명문대학으로의 편입·진학이 가능한 대학입니다.

쉐퍼드대학교는 WASC 뿐만 아니라 ACICS 및 ATS를 통해 미국 연방정부 고등교육 인증협회(CHEA)에 등록된 학교입니다.

**E ENGLISH TRACK 개설**

**★ 미연방정부 학비 지원**

**1 오르티즈 박사 영성 강의**

- 과목명: 목회자 영성과 교회 성장
- Certificate과정 청강가능

후배 목회자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가장 소중한 강의. 제자도, 영성, 교회성장의 핵심 강의  
저서: <제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인간 그 심령의 절규>

**2 찰스 크래프트 박사 치유 강의**

- 과목명: 내적 치유
- Certificate과정 청강가능

그는 정통 장로교 목사출신 선교사였으나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을 체험하고, 이후에 영적전쟁, 내적치유, 문화 인류학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갈수록 영적, 문화적 혼돈 속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강력한 영적 분별력과 권세로 세우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서: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신자가 소유한 놀라운 권세>, <두 시간의 내적 치유 기적>

**3 다양한 프로그램**

- 한국어 신학사, 목회학 석사, 목회학 박사과정
- DMIn, 집중강의
- MDiv, English Program (목회학 석사 영어과정)

**4 다양한 혜택**

- 목사 안수, 여목사 안수, 음악목사 안수
- 미주류 신학 대학들과 학점 교류
- 미군 군복 가능
- 기타 다양한 장학금 혜택(목회자, 목회자 자녀, 가족, 성적, 근로 장학금 등)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원로 학장

# SHEPHERD UNIVERSITY

3200 N. San Fernando Rd., Los Angeles, CA 90065 / info@shepherduniversity.edu / www.shepherduniversity.edu

**SEVIS I-20발행**

상담 및 입학문의  
**323-550-8888**  
Ext.8231 (크리스탈 김)



#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 삼관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것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까 싶다. 그러나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큰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가짜야지 하면서 가지 못하다가 아내와 함께 집을 나섰다. 그곳은 성경에 기록된 삼관(행28:15)이라는 장소다. 그 곳은 성경에 기록

된 곳으로 로마에서 그리 멀지 않은 장소다. 사도바울은 로마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의도였다. 바울은 나폴리 근교의 보디올 항구에 하선하여 기다리던 형제들의 초청을 받아 한 주 간을 보낸 후 (행28:14) 아피아 군

사도도로 로마를 향해 150여Km를 갔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아마도 수일이 요구되었을 것이다. 드디어 바울은 로마까지 50여Km 정도 떨어진 삼관에 도착하게 되었다. 삼관이란 여행객들을 위해 아피아 가도에 지어진 세 개의 펜션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미 로마 교우들이 바울을 만나기 위해 마중을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바울이었지만 이미 서신으로 받아 본 로마서로 바울의 사도됨과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를 만나고 싶어 했을 것이다. 그들로 인해 바울은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었다. (행28:15).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아 아피아 길 바로 옆에 있는 호텔(Foro Appio Mansio hotel)에 들어갔더니 내부가 로마시대의 유물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그래서 혹 여기가 삼관인가 하여 물어보았더니 프런트에 있는 젊은 아가씨는 삼관

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했다. 다만 이 길로 바울이 지나갔다는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그 호텔에서 로마 방향으로 30여 미터만 가면 길가에 비석이 있다고 한다. 그대로 했더니 정말로 길가에 오래된 비석이 쓸쓸하게 서서서 입을 수 없었지만 이곳이 바울이 머물렀던 곳이라는 의미라고 한다. 사도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 50여Km를 마중 나온 로마교인들, 그들이 서로를 확인한 후 요란하게 웃으며 양쪽 볼을 비벼대며 인사하던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그 호탕한 웃음소리는 메아리쳐 지금도 이 주변을 맴돌고 있을지 모르겠다.

이 길은 내가 나폴리에 있는 미군 부인들인 한국인 자매들의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 15년 동안 수백 번 지나갔던 바로 그 아피아(Appia) 길이었다. 그런데도 알지 못하고 이 길을 나는 지나다녔다. 안다는 것은 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닐까 생각한다.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곳은 라티나의 넓은 들녘으로 로마시민들에게 온갖 싱싱한 야채를 공급하는 생산지다. 지금도 아피아 양쪽으로 넓은 들이 형성되어있다. 들녘이 끝나는 곳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2천년 전 바울도 내가 지금 바라보는 산이나 푸르른 들녘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과연 바울은 이 지역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 자세히 살펴보니 이곳에 또 한사람의 족적이 심겨져있었다.

중세의 위대한 가톨릭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1224-1274)다. 그는 교황의 명을 받아 불란서의 주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 길을 지나가던 중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 그는 방대한 지식을 지녔던 석학으로 신학대전을 쓰던 중 하나님을 만났다. 그 광대한 신학을 경험하고 자신의 일천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논한다는 것이 너

무나 송구스러워서 붓을 쥐어버렸다. 그래서 그의 신학대전은 미완성이 되고 말았다.

한 사람의 남겨진 족적,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나에 따라 역사에 기록될 수도 있고 무시하게 흘러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그것은 내가 나를 보는 것과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바울을 환영했던 이 천년 전에 존재했던 세 개의 호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을 품었던 호텔터는 지금 빈자리가 되어 우리부부를 맞이한다. 너는 이 터 위에 어떤 집을 짓겠느냐고 질문하는 듯하다. 그 땅에서 반질반질하게 많은 검은 돌 하나를 집었다. 바울이 디뎠을 지도 모르는 돌 조각을 말이다. 나는 과연 어떤 자국을 이 땅 위에 남기게 될까?

# 푸 / 른 / 초 / 장

박충기 목사  
(엘피스코회 교회)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 해병대의 구호를 다 아실 것입니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해병대라면 아마도 군인 중의 군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해병대는 군복도 일반 군복과는 좀 다릅니다. 군복의 스타일도 그렇지만 특히 명찰이 독특합니다. 해병대의 명찰은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가 새겨지는데 빨간 바탕은 피를 상징하고 노란 글씨는 땀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풀어보자면, 피의 죽음을 필사적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땀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땀 흘리며 노력하고 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 수는 없는 법이며, 성공과 승리를 영원히 향유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육체의 훈련이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

이뤄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일천번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 번제란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와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던 다섯 가지 제사 중의 하나입니다. 이는 성전에

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놓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굴복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기가 완전히 부인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여 ‘천일제단’ ‘천일 새벽기도’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경건의 모습을 드러내고 천 번이라는 숫자만큼 지속적인 노력을 하면 하나님도 감동해서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이뤄주신다는 잘못된 경건의 훈련을 강요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순진한 교인들을 선동하는 것입니다. 지성이면 감천

고, 깨달아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결코 할 수 없다는 그 모든 깨달음과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일천번제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참 소망, 참 구원을 위한 완전한 죽음, 흠 없는 자의 죽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천번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 등의 경건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찬양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경건이 아닙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으로부터 안부의 전화를 받고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비행기 타고, 배

안송하였는데 그들의 예배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족하고 화려한 제물은 아니지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히 드러난다면 그것이 참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고초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것,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것, 그것이 참 예배이며 제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과부의 두 렵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부인하고 우리의 전부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번제로 드려질 때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 결심은 결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일 천 번제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이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배자, 그것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찬양 가사처럼 천 번을 불러 봐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 1천 번제

## (열왕기상 3장 4-5절)

우리 모두는 세상을 살면서, 살기 위해 혹은 이기기 위해 이렇듯 필사의 노력을 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기 위한 노력과 훈련을 참으로 열심히 합니다. 또한 우리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은 운동을 할 것을 권장 받습니다. 하루에 평균 2마일 정도 걷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라고 보고하면서, 장수하는 마을의 사람들을 오랜 시간 관찰하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경건의 훈련이야말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주일성수 잘하고, 심일조 잘하는 행위의 노력과 훈련을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합니다.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이라는 것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지속적인 육체적 노력과 훈련에 의해

들어져자마자 드러게 되는 제사인데, 간단히 말하면 완전히 다 태우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물로 바친 것들이 존재의 흔적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태워지고 소멸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전부로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불어 제사를 드리는 이도 그 제물에 자신을 이입시켜, 그 제물처럼 자신도 하나님께 가감 없이 온전히 드러지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오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일천 번제라는 것이 천 회의 제사를 드림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일천 번제라는 것은 천 번의 횡수만큼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천 마리의 제물

이라는 말은 기독교적이지는 않습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연습으로, 확고한 결심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헌금생활 충실히 하고, 성가대나 찬양팀에서 섬기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등의 모든 것들이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경건의 모습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또한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한결같이 영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것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알

타고, 자동차 타고 수천 마일을 달려 아마존 오지 중의 오지에 선교를 갔을 때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들의 말로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이 별래 같은 나 위해 주 보혈 흘렸네”라며 찬송을 부르며, 어린 아이들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파과야, 코코넛, 유카 등을 가지고 와서 하나, 둘씩 예물로 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 목소리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를



# 1986 -2014, 28th Anniversary 대학설립 28주년



28 주년 기념, 학위수여식  
Graduation commencement  
June 13, 2014 3:00 PM  
Midwest Summer Festival  
June 13, 2014 7:00 PM



Dr. James Song  
Founder/ President

## ESL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voice, Conducting, Composition CCM, Instrument)  
Theology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English Education (TESOL)  
Musice (voice, Conducting, Composition CCM, Instrument)  
M.Div

## Doctor Degree Programs

Ministry (Counseling, Education, Mission, PT)  
Music (Voice, Conducting, Composition CCM, Instrument)  
Leadership

## 학점 취득과정과 학위취득

- 1) 직장과 사역자를 떠나지 않고 On Line 혹은 집중강의를 통해 학점과 학위 취득가능.
- 2) 미국에 유학하여 (SEVIS I-20 Form 발행)학점취득가능 Study Options
  - E-Learning Courses and Blended Courses
  - On-campus courses - SEVIS I-20(유학가능)



# Midwest University

851 Parr Rd, Wentzville, MO, 63385 U.S.A  
usa@midwest.edu (636) 327-4645, 070-8690-2662

www.midwest.edu



우리는 해답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산다. 세계의 경제도 그렇고, 한국의 정치적 사회적상황도 마찬가지다. 2009년 칼빈의 출생 500주년을 지나면서 칼빈주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솟아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상이 신칼빈주의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절제와 금욕으로 세상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다.

Mark Oppenheimer가 2014년 1월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복음주의는 칼빈주의적 부흥 한가운데 있다"는 글이 계속해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David Van Biema는 "The New Calvinism"이라는 글에서 '지금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의에 대한 것들이다. 서부 웨스터민스터신학교의 교회사 교수인 R. Scott Clark은 Mark Driscoll 같은 사람을 칼빈주의자로 불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비록 그들이 툴립(TULIP)은 믿지만, 삼분설, 유아세례, 언약신학, 성령의 은사 등의 견해가 개혁신학 전통과 다르다는 것이다. Bob Robinson 역시 그의 글 'So What's Wrong with Neo-Calvinism?' 에서 언약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지적하면서 그들은 자신들을 neo-calvinism이 아니라 noe-puritanism이라고 불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Neo-puritanism이라는 말은 존 오웬, 리처드 박스터,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의 생각을 이어받은 것이

있던 Abraham Kuyper의 사상으로 대표된다. 카이퍼는 인생의 모든 존재의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은 단 1평방인치도 없다고 했다.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신칼빈주의는 칼빈주의 원리를 교리와 신학의 한계를 넘어서 생활의 전 영역으로 확대 적용하자는 운동이다. 특별히 창 1:26-28 문화명령을 중시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 우주적, 전 피조물의 세계로 확대하는 것이다.

존 파이퍼가 주장하는 '신칼빈주의의 12가지 내용'은 그 첫 번째를 성경의 무오설과 함께 알미니언주의의 차이를 나타내는 툴립(TULIP)을 말한다. Joe Carter는 미국의 신칼빈주의 Neo-Calvinism은 지역 교회와의 전통적인 칼빈주의의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카이퍼는 문화명령과 하나님의 주권의 실현에 초점을 맞춘다고 정의했다. 카이퍼는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을 우주적 보편교회와 시대적 지

있었다. 칼빈주의와 복음주의의 차이인 복음주의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인간의 노력을 중시하는 것에 반해서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강조하는데 있다.

주목할 것은 신칼빈주의는 신학적 지향점이 교단이나 단체가 아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흐름을 "16세기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의 관점을 가르치는 전도자와 신학교 교수들의 수가 늘고 있다. 칼빈의 영향을 받은 교회의 예배 출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별히 20-30대 예배자들이 사이에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물론 칼빈주의자들이 침례교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교단과 전통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칼빈주의적 가르침을 따른다고 고백한다. 순복음에서도, 성결교회, 감리교회, 독립교회들에서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개톨릭을 떠나서 개혁주의적 신앙을 선언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Reformed Catholics라고 부른다. 미국정신을 대표하는 정

## 세계를 새롭게 바꾸는 신 칼빈주의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10가지 사상' 중에서 신칼빈주의를 들었다. 신칼빈주의 보급에 영향을 미치는 기관 중에 하나인 Christianity Today의 편집장 Ted Olsen은 신칼빈주의의 영향을 '오늘 복음 세계의 에너지'라고 했다.

미국에서 영향을 미치는 활동하는 신칼빈주의자들로 알려진 사람들은 미네아폴리스의 John Piper 목사, 시애틀의 Mark Driscoll, 남침례신학교의 Albert Mohler 목사, David Tripp, 뉴욕의 PCA Redeemer Church 목사이고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저자인 Tim Keller, 그리고 Justin Taylor 등을 든다. 또한 현대에 최고로 인기 있는 영어성경은 ESV 성경이다. ESV는 신칼빈주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신칼빈주의의 흐름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게 했다.

Colin Hansen은 그의 저서 'Young, Restless, Reformed: A Journalist's Journey with the New Calvinists'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상처와, 이혼과, 마약과, 성적 유혹의 문화 속에서 자라왔다" 평가했다. Albert Mohler는 "...이들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다. 누구라도 하나님을 성경적으로 정의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칼빈주의자와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된다" 라고 했다.

물론 신칼빈주의에 대한 비판도 있다. 하지만 그 비판은 영향력에 대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인 정

라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신칼빈주의란 무엇인가? 신칼빈주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칼빈주의를 알아야 한다.

칼빈주의는 칼빈의 개인적인 모든 사상을 추종하는 신학이 아니다. 즉, 칼빈의 신학사상과 칼빈주의의 신학사상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칼빈주의를 오해하는 사람들은 칼빈 개인의 신학사상이 곧 칼빈주의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칼빈주의자는 성경 무오설을 믿지만 칼빈의 사상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건전한 비평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가까이 알아가고자 애쓰는 것을 말한다.

칼빈주의 신학의 특징은 하나님 중심사상, 하나님의 절대주권사상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중심 주제인 다섯 가지 solas - 즉,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등을 중요시 한다. 칼빈주의는 언약을 중시한다. 칼빈주의 신앙의 기본 생활 원리는 하나님 중심, 성경중심, 교회중심으로 집약될 수 있다. 또한 진정한 교회에서는 올바른 말씀 선포, 참된 성례의 시행, 온당한 권징의 이행을 교회의 중요한 표지로 이해하고 있다.

그렇다면 신칼빈주의가 무엇인가?

New Calvinism 또는 Neo-Calvinism이라고 불리우는데 이는 유명한 화란의 수상이면서 신학자이

역교회로부터 국가를 비롯한 세속적 일반사회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시켰다. 교회뿐 아니라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변화시키는 세계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했다.

오늘 새삼스럽게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이 대두하는가? 신칼빈주의가 되살아나는 이유는 해답이 없는 미국과 세계를 다시 살리는 대안으로 나오고 있다. 이것은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릴리저스뉴스서비스의 Greg Horton은 2013년 미국 남침례교 총회의 이슈들이 이어 하면서 칼빈주의가 남침례교회를 나누는 이슈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라이프웨이 이리서치의 통계를 빌어서 남침례교의 목회자 중 적어도 30% 이상이 칼빈주의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플로리다 목회자이면서 친 칼빈주의 모임의 대표이기도 한 Tom Ascol 목사는 그보다 더 많은 60% 정도의 목회자들이 칼빈주의의 영향력을 받고 또 고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들이 전통적인 침례교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불편한 이유는 칼빈주의의 예정교리는 소위 복음주의를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19세기 개신교는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에 반드시 동의해야 한다는 비칼빈주의(Non-Calvinist) 신념으로 돌아섰다. 이것은 미국인들의 매우 본질적인 신념이 되었다. 복음주의가 꽃을 피

고도들 역시 칼빈주의자들이었다. 초기 침례교인들 중 상당수 역시 칼빈주의자였다. 침례교 목사이면서 신칼빈주의자이기도 한 Mark Dever는 가르침의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죄와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죄에 대한 이 같은 초점은 더타임스의 지적처럼 최근까지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들과는 많이 다르다. 이는 믿음을 통해 부유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변영복을 설교자들과는 대조적이다.

세계를 새롭게 하는 사상으로의 신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을 보면서 기억할 일이 있다. 우리는 새롭게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 신칼빈주의나 아니면 전통적인 칼빈주의적 방법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될 수 없음을 안다. 이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처럼 완전히 망가졌다. 망가진 금융시스템이나 총체적인 부실화된 나라를 새로 살리는 길은 어떤 신학자의 주장이나 방법이 아니다. 16세기의 칼빈의 방법도 아니고 아니면 새로운 방법도 아니다.

이 세상의 소망도 그리고 오는 세상의 소망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고 칼빈이 재발견한 그 분 예수 그리스도이다. 궁극적으로 만물을 회복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신 그리고 마지막 회복자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기 때문이다.

▲이메일: 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lakwpc0316@gmail.com

Q: 신문을 통해 목사님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욕의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한 목사입니다. 현재 외롭게 개척목회를 하고 있는데 힘들지만 보람은 있습니다. 교회개혁의 첫걸음을 어떤 자세로 내딛어야 하는지요? 목사님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K 목사

A: 흔히들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또 교회를 개척하는가? 질문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는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 계속 개척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제 1, 2, 3차 선교여행을 통해 전도하여 각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우는 개척전도자의 일을 했습니다. 진정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교회 개혁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교회의 개혁은 인간의 노력 이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어적으로 '교회개혁'이라는 말보다 '교회탄생'이라는 말이 더 좋다고 봅니다. 교회 개혁을 힘들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개혁은 힘들다가 아니라 교회 개혁은 쉽다, 재미가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김석년 목사가 쓴 패스 브레이킹(Path Breaking)이란 책을 보면 교회개혁의 3가지 기본자세를 소개하고 있는데 참고가 됩니다. 개척자로서 필요한 몇 가지 마음자세를 먼저 소개합니다.

1. 교회 개혁의 소명(Calling)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교회 개척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교회성장 컨설턴트인 존 웹버가 10년 동안 100% 성장하여 200여명 이상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를

### 한 영혼에 집중하는 사역으로 건강한 교회세우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두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과 현재 목회위로 부르셨다는 확신입니다. 진정한 개척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개척자로 부르셨다는 것과 그 일에 인생을 불사르려는 확신에 차있어야 합니다. 실로 소명이 없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개척을 한다면 이미 실패를 시작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 곧 교회 개혁을 위해 부름받은 자이다"라는 확신과 소명이 있어야 한다.

2. 한 영혼에게 집중하라. 교회개혁은 3고의 길입니다.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인간적으로 외로운 길입니다. 그러나 개척자가 누릴 수 있는 특권 가운데 하나는 "한 영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보다 귀하게 여기는 '원맨비전'(One Man Vision)을 가지고 그에게 집중하여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있는 교회라면 결코 작은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인간 소외현상이 더해가는 이 시대에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만큼 큰 사역은 없습니다.

3. 성공보다 정도(正道)를 추구하라. 성공은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어느 정도 모여야 성공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들은 성공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며 승리의 목회기를 뿐입니다. 너무 성공에 집착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본래의 궤도를 벗어나기 마련입니다. 먼저 정도를 견뎌야 하는 것은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높임받기보다 낮아지는 겸손함으로 대접받기보다 섬기는 자세로 숫자 지향, 건물지향보다 '원맨비전'으로 한 영혼을 천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자세로 목회하는 것입니다.

소위 사람이 많이 모이는 목회를 하는 목회자를 바라보고 허황된 꿈을 꾸다가 스스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성경의 원리를 따라 정도로 한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덤비지 말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목회자가 숭선수범으로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한알의 밀알로 생명을 내어놓을 때 이 땅에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위대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본 교회는 캘리포니아 산호세에 위치한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소속교회로서 아래와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자 격: 1. 이민 목회에 비전과 소명을 받은 분으로 영어권과(EM) 함께 사역할 수 있는 분  
2. 정규 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M. Div) 혹은 신학석사(Th. M) 이상의 과정을 졸업한 분  
3. 목회경력(담임목사 혹은 전임 부목사)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분  
4. 인정된 교단에서 안수를 받고 본교회가 속한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교단에 가입할 수 있는 분  
5. 미국 거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유한 분

- 제출서류: 1. 이력서 2. 본인 소개 및 목회 소신서 3. 신학교 졸업 및 목사 안수 증명서  
4. 추천서 (2명) 5. 설교 테이프, CD, 혹은 DVD (2개) 6. 본인 및 가족 사진

● 제출서류 마감일: 2014년 8월31일 우체국 소인 까지

● 제출처: 임마누엘 장로교회 청빙위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

● 문 의: 청빙위원장 이동우 장로 (408) 826-1308, 이메일 pastor@kepc.org

- 기 타: 1. 서류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3. 선정된 분은 개별통지합니다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장로교회

Korean Emmanuel Presbyterian Church www.kepc.org  
4435 Fortran Drive San Jose, CA 95134 Tel: 408.263.5100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니마디(NIMADI)



인도는 매우 다양한 민족, 언어, 종교, 사회계층으로 이루어진 나라다. 이 다양성 때문에 인도를 한민족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

인도는 히말라야, 북부 평야지역, 데칸고원, 히말라야 산맥의 동, 서 지역으로 구분된다. 지정학적 위치에 따라서 열대우림기후와 온화한 기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후 분포도를 나타낸다.

인도 인구의 73%가 빈민지역에서 살면서 농업생산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농민들 소유의 땅은 매우 작고 척박해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도 인구의 90%는 힌두교의 전통과 풍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 힌두교는 대략 AD 1200년경에 발생했는데 힌두교의 교리는 이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힌두교의 교리는 최고위층의 사람들도 지키려 힘쓰며 체식위층의 식습관은 육식을 하는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다르다.

인도 인구의 73%가 빈민지역에서 살면서 농업생산 노동자로 살아가고 있다. 농민들 소유의 땅은 매우 작고 척박해 가까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시애틀 충격 기독교대학 신앙 회복 안간힘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퍼시픽대학교(SPU)가 충격 사고 충격을 기도에 의지해 극복하고 있다고 미 기독교매체 가스펠헤럴드가 7일 보도했다.



SPU는 5일 무장한 20대가 쓴 총에 학생 1명이 죽고 3명이 크게 다치는 비극을 겪었다. 사고 당일 저녁 SPU 캠퍼스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인 자발적 기도회가 열렸다.

사건 당일 저녁 SPU 캠퍼스에서는 수많은 학생들이 모인 자발적 기도회가 열렸다. 기도회에 참석한 프랭크 스페나 성서학 교수는 "이번 사고는 하나님의 계획도 그분의 뜻도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벌인 것도 아니다."

SPU는 1891년 미국 감리교 중 하나인 자유감리교(Free Methodists)가 세웠다. 학생 4000여명 중 상당수가 크리스천으로 알려졌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미국인 감소세

갤럽의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 중 28%가 성경을 '실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문자 그대로 믿는다'고 밝혔다.

해 왔으며, 이 같이 답한 이들은 1979년 사상 최고치인 50%를 기록한 뒤 2012년을 제외하고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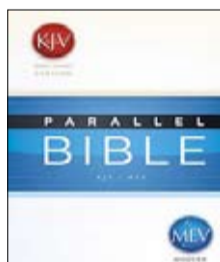


반면 "성경은 고대의 책으로, 전설과 신화, 역사, 도덕적인 개념을 사람이 기록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상 최고치인 21%를 차지했는데, 1976년에는 13%만이 그렇게 주장했었다.

갤럽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 서두에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고 성경의 저자들은 단지 그 말씀을 적는 역할만 한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지에 관한 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큰 두 가지 논쟁이다.

KJV 최신버전 'MEV' 출판

새로운 버전의 성경 영어번역본, Modern English Version(이하 MEV)이 출판됐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5월 30일 보도했다.



MEV는 성경적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는 독자들에게, 성경 원래의 메시지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동

시에 오늘날의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다"며 "이로 인해 MEV 버전은 예루살렘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한 많은 독자들에게 폭넓게 읽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카리스마 출판사의 디렉터인 제이슨 맥물런(Jason McMullen)은 "지금은 새로운 번역본이 필요한 시대이며, 그래서 이 번역본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그는 "번역본은 2005년 번역에 착수해 2013년 이를 마쳤다.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주님께서 번역본이 당신의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이끄셨다."

MEV는 KJV를 기초로 했는데, KJV는 최초의 공식적인 영어 번역본으로 잘 알려져 있다.

PCUSA 감소세, 대부분 ECO로 옮겨

미국장로교(PCUSA)의 교세 감소가 2013년에도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발표된 PCUSA 총회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교단 소속 성도수는 약 176만 명으로, 이는 2012년 184만 명과 비교할 때 줄어든 수치다.



더 심각한 점은 전체적인 성도수와 함께 교회수가 감소된 것인데, 2012년 10,262개에서 1년이 지난 2013년 10,038개로 집계됐다.

PCUSA 부총회장인 그레디 파슨스 목사는 교세 감소 추세를 명백히 드러내는 집계 결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 비교해 볼 때 전반적인 감소 추세가 줄어든 것

을 통해 '소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에 발표된 숫자들은 교단 내 활동적인 성도들의 감소를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몇 해 전보다 감소 추세가 줄어들었다.

PCUSA 내 회중 감소의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이다. 이 건으로 오랫동안 논란에 휩싸이던 가운데, 결국 2012년 총회에서 "동성애자들도 성직에 임명할 수 있도록" 교단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게 된다.

ECO는 작년 말 총 107개 교회, 176명 목회자의 규모로 보고했으며, 교단 가입을 원하는 교회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나이지리아, 기독교 최악의 박해국

국제오픈도어선교회(오픈도어)는 3일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이 가장 심한 10대 국가를 선정해 발표했다. 최근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매년 초 발표하는 기독교 박해 50대 국가와 별도로 폭력이 심한 국가를 조사한 것이다.



최악의 폭력 국가로는 나이지리아를 꼽았다. 나이지리아에선 2012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7개월간 2073명이 신앙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 조사기간 전 세계 순교자는 5479명으로 집계됐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레이스 신학대학원

본교 소개 및 특전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Off-Campus Courses

Sydney, Australia
July 28-August 1 (7월 28일-8월 1일)
DI8180 Cross-Cultural Leadership Development / Dr. Bruce Dipple

Los Angeles, California
Sept 8-12 (9월 8일-12일)
IM 830 Islam/ Dr. Daniel Lute

Phnom Penh, Cambodia
Oct 27-31(10월 27일-31일)

Seoul, Korea
Nov 3-7(11월 3일-7일)
IM 830 Islam/ Dr. Todd Bradley

Online Courses ( 8주간 온라인 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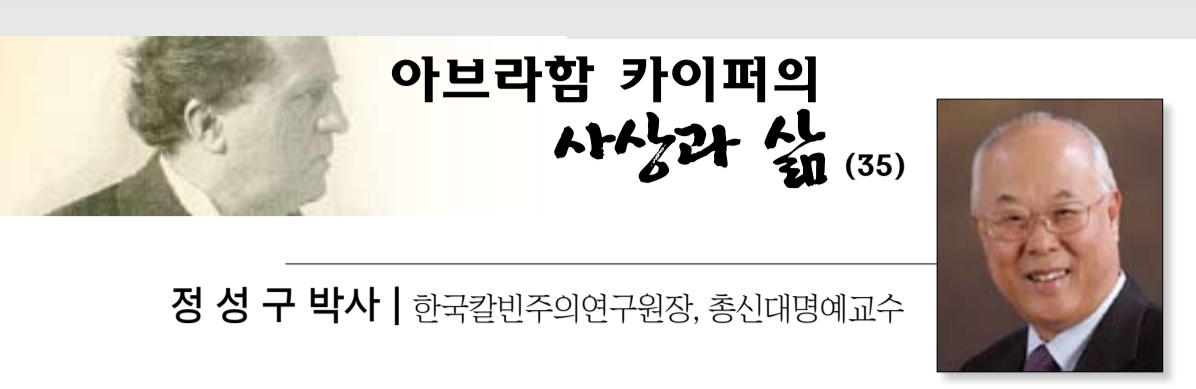
Aug 18-Oct 10 (8월 18일-10월 10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 (교차문화 의사소통)

Oct 13-Dec 5 (10월 13일-12월 5일)
DI 8520 World Religions(세계종교)

Grace Theological Seminary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35)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 카이퍼의 신학적 저서들

카이퍼는 개혁주의 신학자이다. 그러므로 카이퍼는 칼빈을 모델로 해서 학문의 발전을 추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른바 신학의 대중화를 꾀하였다. 즉 신학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썼다. 카이퍼의 개혁주의에 대한 신학 작품도 책을 쓰기 위한 것도 있지만 강연을 위해서 또는 De Heraut지에서 연속시리즈로 게재되었던 것을 모아서 책으로 낸 경우도 많다.

서 행한 강연이다. 학문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한 학문 곧 중생자의 학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중생하지 못한 자가 하는 학문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

로 국가나 교회가 학문을 간섭해서는 안 되고 참된 학문은 늘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자유롭게 연구해야 할 것을 천명했다.

1) 영역주권사상(Souveriniteit in eigen Kring)은 1880년 뿌라야 대학교 설립 겸 총장 취임에 배 때 행한 강연집이다. 카이퍼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주권은 삶의 전 영역에 미치지 아니한 곳이 없다고 선언했다. 이 연설문 곧 이 소책자는 카이퍼의 신학 특히 칼빈주의 사상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되는 것이다. 이 강연은 카이퍼가 1880년 10월 20일 카이퍼가 시무하는 암스테르담 새 교회(실은 중앙교회란 말이 더 좋을 듯하다)에서 내외 귀빈, 교육학자 정치가들 앞에

로 국가나 교회가 학문을 간섭해서는 안 되고 참된 학문은 늘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따라서 자유롭게 연구해야 할 것을 천명했다.

2) 성령의 사역(Het Werk van den Heiligen Geest 1888) 이 책은 성령의 신학자 칼빈의 성령론 이후에 나온 가장 큰 대작이다. 물론 17세기의 영국의 존 오웬(John Owen)이 성령론을 쓰기는 했지만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 신학을 좌지우지 하고 있을 때 카이퍼는 창조, 구속, 성화의 전 과정에서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Herart지에 논설로 연재되었던 것을 취합해서 출판하기를 했어도 성경 구절을 해설 또는 묵상하는 형식으로 쉽게 글을 써가고 있다.

카이퍼의 가장 값진 이 저서는 개혁교회에 이루어진 성령의 사역을 다루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월필드(B. B. Warfield)박사는 주장하기를 16세기 칼빈이 성령론을 쓴 후 화란 신학자로서 성령의 사역을 통일되고 체계적으로 해명해서 제시한 최초의 역작으로서 독자들에게 전체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관점을 제공한다 고 했다. 이 책은 영어로도 번역되었고 수십 년 전에

한국어로도 번역된 바 있다. 카이퍼는 칼빈의 입장을 따르면서 개혁주의 성령론을 세웠다. 카이퍼는 일반은총의 신학자라는 말로 쓸 수가 있으나 차라리 '성령의 신학자'라고 평가하는 것이 더 좋을 듯하다.

3)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대한 해설 서문 이 책은 칼빈의 기독교강요가 1650년에 화란어로 번역되었고, 1889년에 이를 다시 재번역하면서 카이퍼 박사가 칼빈의 기독교강요에 대한 해설을 길게 썼다. 이는 카이퍼 자신의 책은 아니지만 당대에 화란 최고의 칼빈학자가 카이퍼라는 의미이다. 이 서문에는 칼빈의 기독교강요의 의미와 기독교강요 출판을 역사적으로 정리해

의 의미를 정확히 알도록 했다. 이러한 접근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아주 독특한 신학전개론 본다. 신학 백과는 신학의 본질을 규명하고, 전체 학문의 체계 속에서 그 학문의 위치를 설정한다. 따라서 여러 분야로 구성된 신학을 유기적인 전체를 설명하려고 했다. 카이퍼는 신학을 학문적으로 평가한 후에 재구성했다. 1권은 서문이고, 2권은 원론이며, 3권은 각론이다.

지에 연속 기획으로 기고했던 것인데, 전 3권의 방대한 저서가 되었다. 여기서 카이퍼 자신이 화란어의 은혜(Genade) 대신에 일반은총을 Gratie로 사용한 점이다. 이 두말의 구분은 카이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믿음으로 구원하는 것이 특별은총(Paticular Genade)이라던 일반은총은 이 세상의 피조물 속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 곧 호의(Favour)라고 볼 수 있다. 카이퍼는 특별은총을 강조했으나, 다른 방법으로 일반은총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 책으로 말미암은 논쟁도 적지 않았다. 카이퍼는 말하기를 일반은총은 그의 구원의 은총과는 분명히 구분됨으로 본질상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원하며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모든 개인, 인류와 우주에 창조주로서 일반은총을 주신다. 일반은총으로서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의 죄악을 억제하신다고 했다.

## 칼빈주의 사상이해의 지름길 “영역주권사상” 칼빈 성령론 이후 가장 큰 대작 “성령의 사역”

서 기록했다.

4) 신학백과 사전학(Encyclopaedie der Heilige Godgeleerdheid, 1894)은 카이퍼 저작 가운데 가장 학문적인 대작이다. 이 책은 1893-1894년 사이에 전 3권으로 출판되었다. 카이퍼는 신학서설과 신학원리(De principium Theologiae)를 제시하고 신학 각 과목의 연계와 조화를 다루고 있다. 카이퍼는 개혁주의신학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했다. 신학백과사전학 즉 신학의 조직, 범위, 분석을 통해서 학문으로서의 신학

주의와 종교, 정치, 과학, 예술 등을 논하고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를 힘 있게 외쳤다. 이는 카이퍼의 이른바 신칼빈주의(Neo-Calvinism)를 제창한 책이다. 카이퍼는 일찍이 칼빈이 말했던 일반은총론을 보다 자세하게 확대해서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 하려고 했다. 이 책은 전 세계에 가장 잘 알려진 카이퍼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다.

6) 일반은총론(De Gemeene Gratie, I - III, 1902-1904) 카이퍼가 신학계에 가장 주목받은 책이다. 그의 일반은총론은 De Heraut

7) 교의학 강의 모음(Dictaten Dogmatiek, Colledgeictaten door Studenten Saamgesteld 1910) 카이퍼는 교리학을 완성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의 교리학 강의를 필기한 학생들의 원고와 카이퍼 자신의 강의록을 모아서 전 5권의 방대한 책을 출판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카이퍼는 교리학을 역사적이고 해석학적으로 다루어 개혁주의적인 교리학을 전개했다. 그러나 이 책은 그의 교리학의 완성품이 되지 못하고 미완성품이 되었다. (14면으로 계속)

## 칼럼 음악목회 (29)

### 지휘자의 조건 2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원소장



지난번 글에서 필자가 지휘자의 지휘는 발레와 아주 다르다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발레는 음악을 듣고 그 음악의 변화에 맞추어 몸으로 표현하지만 지휘는 음악보다 한 박자 앞을 몸동작으로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쓴 글에서 지휘자는 음악을 듣는 만큼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말할 수 있는 것은 지휘자는 음악을 아는 만큼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문적인 또는 이론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지휘자가 음악보다 앞서 지휘를 해야 하는가? 더구나 오

케스트라와 함께 협연한다면 음악의 시작은 적어도 한 마디 또는 느린 곡은 두 박자의 예비박을 주고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어야 하는가? 아마 대부분의 합창 지휘자들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케스트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합창지휘자들이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경우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오케스트라 즉 현악기와 관악기와 타악기 그리고 피아노와 오르간이 동시에 함께 연주를 시작한다면 지휘자의 귀에 맨 먼저 들리는 소

리가 어떤 악기의 소리일까요? 대체로 피아노와 타악기 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그리고 이어 현악기 소리가 들리고 맨 나중에 관악기와 오르간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나 타악기는 치는 순간 바로 소리가 나기 때문이요, 현악기는 보잉 타임이 비교적 적기 때문에 바로 이어 소리를 낼 수 있지만 관악기는 입으로 내는 바람이 들어가 관을 통과해야 소리가 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곧 바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오르간 또한 피아노처럼 치자마자 소리가 나는 악기가 아니지요. 파이프가 소리를 내기까지는 역시 시간적인 간격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가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경우 합창단을 지휘하듯이 한 박자의 예비박만 주고 음악을 시작하게 되면 대체로 그 음악의 시작이 지체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음악이 전체적으로 리듬감이나 화성도 명료하지 않고 어수선한 상태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의 시작은 매우 중요합니다. 지휘자가 음악의 시작을 알리는 예비박을 독일어로는 '아인자츠'라고 하고 영어로는 'Prepared Beating'이라고 하는데 그 예비박 안에는 그 음악을 표현하고자 하는 모든 암시가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음악의 성격 즉 다이내믹과 템포 그리고 음색과 느낌까지 다 포함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가 동시에 시작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비박을 주어야 합니다. 빠른 템포의 곡은 한 마디 또는 두 마디 정도 그리고 느린 템포의 곡은 적어도 두 박자 정도 예비박을 제시할 때, 앞서 말한 그 음

악의 성격은 물론 모든 악기가 동시에 울려 음악이 전체적으로 명료하고 리듬과 화성도 일치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휘자의 지휘는 음악보다 앞서 지휘를 해야 합니다. 피아노와 찬양대 합창단을 지휘한다고 해도 여전히 음악의 시작인 예비박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한 음악이 부분적으로 중지하고 다시 시작하는 부분마다 지휘자의 지휘가 그 다음 전개되는 음악적 변화와 분위기 등 모든 것을 미리 표현해야 합니다. 더불어 음악이 진행되는 동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지 말고 그 음악의 다이내믹과 극적인 표현을 한 박자 앞서 표현해야 합니다. 실제적인 현장을 살펴보면 교회의 크기와 찬양대의 크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찬양대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크면 클수록 지휘자의 지휘는 더욱 명료해야 하며 지휘패턴이 단순할수록 음악적으로 효과적인 결

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환경상 또는 미관상 피아노와 오르간의 위치를 아주 동떨어져 배치해두는 경우가 많고 찬양대 좌석과 오케스트라 위치의 거리가 먼 경우에 음악을 귀로 듣고 앙상블을 만든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리가 전달되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고 어쿠스틱이 좋지 않은 환경에서는 전달에 장애가 있지만 시각적으로는 즉시 전달되기 때문에 모든 찬양대원들과 연주자들은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 음악을 명확하게 맞추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대원들이 할 수만 있다면 악보를 암기하고 지휘자만 바라보고 찬양한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감동적인 찬양이 될 수 있습니다. 지휘자에게 있어 예비박과 음악적인 변화에 있어 한 박자 전을 지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차세대연구원: (714)699-0210

## 담임목사님을 모십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평양노회 소속 평안교회는 영감있는 복음적 말씀선포와 학생과 섬김의 리더십으로 평안교회 비전을 계승발전시킬 담임목사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 1. 자격

- (1) 연령: 만 40-60세
- (2) 학력: 정규 신학대학 또는 일반대학 졸업 후 총신신학대학원 (M.Div.) 이상 학위 소지자

### 2. 제출서류

- (1) 1차 서류
  - 교회지정 지원서 1부, 사역교회 최근 주보 1부
  - 설교 2편 저장 CD 1개
- (2) 2차 서류
  - 학위증명서 각 1부
  - 본인 및 사모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소속 교단 및 노회소속증명서, 자격증, 출판물 등

### 3. 서류제출 기한 및 제출처

- (1) 제출기한: 2014년 7월 11일(금) 오후 5시
- (2) 제출처: (우) 100-130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11 (순화동 6-9) 평안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02-776-1854, 755-7103) E-mail : master@epapc.org

### 4. 기타

- (1) 지원서는 교회홈페이지(www.epapc.org)에서 다운받아 사용함
- (2) 모든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3) 모든 심사결과는 개별 통지하며 1차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서류 제출함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임시당회장 한혜관 목사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_____ 영어 _____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 창조과학 칼럼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 191. 창조론의 기초(41) 가장 특별한 존재 그리고 진화론

지구가 우주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이유는 지구에만 생명체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 특별한 지구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가 사람인 이유는 사람은 창조자의 형상이고 모든 창조물들이 사람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창조론의 기초'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디서 왔는가?"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한 창조

가 있었다.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였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지속적으로 우리를 유지하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 분에게 전적인 예배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사람은 작은 창조자다. 동물들도 사람들처럼 자기가 살 집을 만들고 밥을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그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본능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것 뿐 더 이상의 발전은 없다. 반면에, 사람은 자기의 상상에 따라 어떤

버지와 연결되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이다. 창세기 3:8에는 '날이 서늘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살던 동산을 거닐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규칙적으로 사람들에게 모습을 나타내시고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려버린 것이다. 그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그 관계를 회복하고자 여러 가지 우상들을 섬기고, 만족감을 얻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당신이 창조하신 지구를 다스릴 사명을 주셨다. 그러나 그 다스림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잘 돌보는 것이지 탐욕스럽게 그것들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었다. 관리인의 책임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동시에 인류의 기본 필요들을 채우도록 환경을 경영하는 것 2)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을 동시에 모독하는 이론으로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 모든 죄의 열매들은 진화론과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것을 보면 금세 알 수 있다. 진화론이 끼친 가장 큰 해악은 '하나님의 형상'을 '동물들 중의 하나'로 바꾸어버린 것이다. 모든 삶의 기초인 사람의 정체성이 왜곡되어 죄악의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동성애, 나체주의, 가정 파괴, 낙태와 생명 경시 현상들, 전쟁, 인종차별, 포르노, 마약, 자유주의 신학, 공산주의, 혼전 성관계 등 무질서한 성 윤리, 무자비함, 무질서 등등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든 행위와 생각 속에 진화론이 들어 있다. 이들이 진화론 폐해의 전부가 아니다.

진화론은 복음과 교회의 존재 이유도 없애 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악의 근원으로 만든다. 진화 역사가 사실이라면, 그래서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공룡과 다른 동물들이 고통 가운데 죽었다면, 그 수많은 죽음과 고통은 인간 존재 이전에 수억 년 동안 있어왔던 셈이다. 그러므로 진화론은 죽음과 고통을 사람의 죄와 상관없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죽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첫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다

## 진화론은 '하나님의 형상' 을 '동물들 중 하나' 로 바꿔 복음과 교회존재이유 없애고 하나님을 악의 근원으로

를 기초로 40회의 글을 연재하였다.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의 목적으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끝으로 '창조론의 기초' 시리즈를 마치려고 한다.

성경은 분명하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에 하나지만 다른 것들과는 격이 다른 창조물이다.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유전학적인 면에서나 생김새가 다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람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창세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다른 창조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것이 왜 우리는 다른 어떤 동물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합적인 행동을 하는지를 설명해준다. 우리는 상상하고, 전에 결코 보지 않았던 물건들을 만들고, 낯선 사람들에게도 동정심을 보이고, 창조 세계에서 자기의 역할과 운명을 생각한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되었고 그분의 가장 소중한 창조물이다. 인류가 반역하여 죄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화해를 위해 그 분 자신이 죽을 정도로 귀중한 가치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사람은 순전히 지적이고 미적 인 목적 그 자체만을 위해서도 어떤 일들을 수행하는 유일한 존재다.

사람의 몸은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지구에 있는 물질로 만들어졌다(창2:7, 19). 심지어 동물들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영혼(soul, 히브리어로 네페쉬)이 있고 영(spirit or breath 히브리어로 루하흐)도 있다. 그러나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창1:27). 이것이 창조자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이유다.

사람만 어떤 것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고 있다. 마음속에 우리의 창조자 즉 하늘 아

파괴하거나 실험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창조하는 생명공학 기술을 발전시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다스리지 않는 것 3)생명공학 기술을 인류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데는 사용하지만 '수퍼 인간'을 만드는 데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이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처럼 놀아 지기를 바랐던 인류의 처음 두 사람은 창조자가 금지했던 단 하나의 요구마저 묵살하고 말았다. 그 타락한 아담의 형상인 인류는 지금도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다.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할 뿐 아니라 진리도 스스로 결정한다. 그 결과물들 중에 아마도 가장 심각한 것이 진화론일 것이다.

진화론은 하나님과 그의 형상

고(롬5:12) 그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창조자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고전15:45)으로 오셨다고 말한다. 어떤 형태의 진화론(유신론적 진화론/점진적 창조론/다중격변론/날-시대 이론)이든지 이 결론은 마찬가지다.

진화의 반대는 무엇일까? 대부분 '창조'라고만 단순히 대답하고 예수님만 믿으면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미 진화론에 세워져있거나 압도되어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잘 생각해보자. 진화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창조'만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진화는 사람이 누구인지, 왜 인류가 죄인이 되어 이런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지, 복음이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전도와 선교가 왜 필요한지 등 교회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 인류의 공통 역사를 부인한다. 진화의 반대는 성경인 것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교회는 진리 가운데 설 수 있고 신앙을 물려줄 수 있다. 다른 전언이나 방법은 없다. 성경대로의 창조 신앙 위에 선 주님의 몸, 하나님의 형상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해본다.

이메일: mailforwscchoi@gmail.com

#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 해결사 리더 유다

유다는 남편에게 사랑을 빼앗기고 다복한 자식 복을 받은 레아의 4번째 소생입니다. 딸이 르우벤은 서모 빌화와 통정하여,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여동생 디나 사건으로 수그리고 들어와 할레까지 받으려는 세겜인들을 속이고 도륙해 피를 뿌려 근동의 이방인들에게 여호와와 이름을 더럽히고 범사를 피웠다는 죄목으로 못난 세 형들로 인해 유다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해결사, 대변인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고부 다말과의 사건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다말로 하여금 아이를 낳아 대를 계승토록 공개적으로 허락을 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 요셉을 죽이려 드는 형제들을 막아서서 차라리 지나가던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요셉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며, 예굽 총리대신이 된 요셉이 기근에 양식을 구하러 온 저들을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 된 뒤를 시험할 때 유다가 나서서 자신을 걸고 책임을 지는 모습 등을 통해 아버지 야곱의 신임을 단단히 얻어내 형제들의 찬송으로 많은 백성들을 다스릴 왕이 나올 왕의 집안으로 축복을 받습니다.

결국 우리 주 예수님의 직계 조상이 되어 도무지 자격 없는 죄인들을 구하러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말과 행실이 성령 충만의 일치되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동행자가 되니 그의 믿음의 인격과 행실이 뛰어나서 모두의 찬송을 이끌어 내는 성공 인생입니다. 그 얼마나 시원시원한 주님의 사람인지요.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선택하고 따르는 자를 높이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귀히 사용하십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책임전가 하지 않고 해를 받아 관제가 될지라도 자기 몫으로 책임을 지는 유다에게서 그의 주위의 모든 사람의 마음을 끌어내는 진정한 리더십의 모델을 봅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임이요"(마5:9). 진정으로 주님의 평강이 편만하도록 화평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음식을 만들어 열심히 사람들 먹이는 재미에 폭 빠져 사람들 가운데 지지고 볶고 평범히 살던 부족한 저를 부엌에서 끌어내어 이제는 말씀을 요리해 먹이는 말씀의 요리사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간 만났던 너무나 다양하고 도무지 어디로 뿔 줄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며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위해 내 삶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 가운데 열매로 드리려 내 몸 던져 죽기로 심는 것이 진실이었음을 주님은 아십니다. 황당한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여지없이 로템나 무로 끌어내리는 허무주의 소리를 붙잡아서 주님의 발 앞에 드리고 목이 마른 자들에게 복된 말씀을 계속해서 퍼주라고 위로 해주십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어 봐야 만나 유다처럼 내 삶을 희생하는 분을 보임으로 아주 미미한 소수일지라도 헌신을 끌어내 같은 길을 가는 주님의 군대들을 키워내라고 주저않는 제 손을 붙들어 잡아드립니다.

합겹다 역- 소리 나는 제 마음의 신음소리보다 먹 구름위에 태양같이 하나님은 견재하시니 앞으로 함께 가자고 불러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인도를 전심으로 의지하며 자리를 걸고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온전한 성경 역사 vs 진화론에 물든 성경

# 김용천 목사 소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전 총회장(18회)을 역임하고 한평생 목회에 헌신해 오신 김용천 목사(96세)님께서 10일(화) 오전 7시30분 노환으로 헌팅턴양로병원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장으로 장례예배를 드립니다.

### 장례 일정

**입관예배 : 6월 12일(목) 저녁 7시**  
장소 : 한국 장의사  
2045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집례 : 김현인 목사(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설교 : 김상덕 목사(제31회 전총회장)

**발인예배 : 6월 13일(금) 오전 10시**  
장소 : 한국 장의사  
2045 W Washington Blvd Los Angeles, CA 90018  
집례 : 김현인 목사(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설교 : 엄영민 목사(제37회 전총회장)

**하관예배 : 6월 13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ROSE HILLS MEMORIAL PARK  
3888 Workman Mill Rd, Whittier, CA 90601  
집례 : 김현인 목사(남가주든든한교회담임), 설교 : 황은영 목사(제28회 전총회장)

### 유가족

부인 김순실 사모  
장남: 故 김충일 목사      며느리: 故 김옥란 사모  
친손자 김아론      김마르틴  
친손녀 김엘리자벳      손자사위: 황마이클  
         김사라  
장녀: 김혜신      사위: 임경우  
외손자: 임아폴로      외손며느리: 박루시아  
외손녀: 임레베카      외손녀사위: 정윤송  
증손녀: 임Belen, 임Luz

### 장례위원:

이익관, 고응보, 장영춘, 황보연준, 서재승, 이희봉, 안병환, 송영성, 윤종호, 이근신, 천성덕, 이영섭, 김경진, 황은영, 이용걸, 전덕영, 김상덕, 송찬우, 문성록, 강기봉, 김남수, 엄영민(이상 전직 KAPC 총회장목사), 정관일(현 KAPC 총회장목사)

이완구, 이진도, 김중원, 김성훈, 김언석, 이동창, 정문하 (이상 남가주든든한교회 장로)





목회서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여승훈 목사 (시카고 가나안장로교회)

예수님을 알아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절실함을 느낀다. 뜨거운 예배가 있고, 뜨거운 찬양이 있고, 근사한 행사와 즐거운 웃음꽃이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 믿지 않

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왜 그대지도 무관심할까? 과연 그대도 될까? 단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 한해를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는 얼마나 될까? 그리스도가 실재가 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기

독교라는 종교성에 심취된 것일까?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적 멋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충격적인 세월호 사건을 접하면서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한 채 떠나버린 어린 학

생들의 죽음을 대하면서 현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필자의 마음에 도전을 불러 일으켰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것이었다.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어린 영혼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한쪽 가슴에 담은 채, 또 다른 가슴에서는 사람들에게 간박하게 전해주어야 하는 질문이다.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라는 이 엄숙한 질문 앞에 모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보실 수 있다면 종교생활과 종교적 결핍 내느라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학생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 살아날

공리만 하고 빠져 나온 세월호 선실의 어른들 알고 있지 않은가? 그들을 향하여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비난을 화살을 쏘아댔는가? 만약 그리스도인들과 지역교회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한다면,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을 뒤로한 채 자기만 살겠다고 빠져나온 그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는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감상만 하고 있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뒷진전체 우두커니 서 있기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가슴 없는 입술의 소리만 장황하게 늘어놓고 있을 수 있겠는가?

다시 강조하지만 그 어떤 직분이든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모든 직분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은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이다.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예수를 믿으므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고,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여주는 일을 쉬지 않고 하므로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은퇴영문은 신경 쓰는데 심지어는 자기가 물질 장까지 미리 장만을 다 해놓는데 주님 앞에 설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며 살기를 소원해본다.

“우리 모두의 죄악으로 빚어진 참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간구”

KAPC 세월호 참사 관련 선언문 발표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가 지난 23일 세월호 참사 관련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KAPC 제38회 총회장과 교단 산하 30개 노회 총대원 이름으로 작성됐다. 내용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슬픔 속에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회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호소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KAPC, 총회장 정관일 목사)가 지난 23일 세월호 참사 관련 선언문을 발표했다. 선언문은 KAPC 제38회 총회장과 교단 산하 30개 노회 총대원 이름으로 작성됐다. 내용은 대한민국 전 국민을 슬픔 속에 몰아넣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며 회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한국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호소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북미주를 비롯한 중남미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의 복음화를 위해 성경 중심의 개혁주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 본 KAPC교단 산하 600여교회, 30개 노회 총대원 일동은 조국의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애석한 마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래와 같은 우리의 참회와 위로, 각오와 청원의 마음을 선언한다. 첫째, 세월호 참사를 통해 깨닫게 하신 바, 지금까지의 세속적 성장주의 목회철학을 회개하며, 건전한 신학과 성숙한 교회 부흥운동을 통해 조국과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살려내고 죄 아래 타락해 가는 현대 사회에 소금과 빛이 되기를 진심으로 간구한다. 마지막으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정부의 공정하고도 투명한 수사를 요청하며, 이를 계기로 정경종(政經宗) 비리 유착의 연결고리를 단절하며 무사 안일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통해 모든 백성이 안전하고 평화로우리, 지역갈등이 없고, 어느 백성도 소외됨이 없는 공평하고 행복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선언한다.” (유원정 기자)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열린 ECA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받은 목회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ECA 안수식 “중대한 큰일을 하라” 박상진 전도사 등 18명 목사안수

ECA(Evangelical Church Alliance 총회장 로버트 트릴 목사) 목사와 안수식이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윤대혁 목사)에서 3일 오후 6시

상황리에 거행됐다. 이날 안수식에서 박상진 전도사(세계선교교회) 등 18명이 목사안수를 받았다. 안수식은 다니엘뉴먼 목사(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가 환영사를 했으며, 스캇 리메네거 목사가 ‘중대한 큰일을 하라’(느6:3)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스캇 목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시신 일이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스캇 목사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며,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도 멈추지 못하도록 결정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안수식은 로버트 트릴 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학교 제 23회 학위수여식에서 송정명총장이 졸업생에게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월드미션대학 제 23회 학위수여식 최웅섭 선교사에 명박 등 47명 학위수여

월드미션대학(총장 송정명 목사)은 7일 오후 1시 동양선교교회(담임 박형은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최웅섭 선교사가 학위증서 수여를 했으며, 시상, 격려사, 기념품 증정 등으로 이어졌다. 이상명 총장은 격려사에서 “미주장신대는 하나님일꾼을 양성하는 학교이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학교”라고 운을 댄 후 “졸업생들은 복음대로 사는 사역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전하는 사역자, 미주장신 동문이라는 자긍심을 늘 간직하고 나아가는 자들 되길 바란다. 또한 영성과 지성의 날개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청춘 듣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하신 것도 감사하며 신학공부를 통해 신학의 균형과 뼈대를 세우게 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자는 다음과 같다. △BASS: 김안나, 민동기, 박정은, 정종민, 양보경, 우경선, 유민영, 윤여진, 이복관, 이엘렌, 이예원, 임원균 △BACC: 김남일, 김수희, 마정순, 박미영, 박미희, 박은미, 박재웅, 백소홍, 정경숙, 황요셉 △BAM: 최정숙 △MAT: 김경희, 김광승, 김용철, 김현욱 이선정 △M.Div: 김광영, 박숙경, 안승태, 우광필, 이성희, 이황정, 전요한, 정성훈, 정유나, 조소영, 최상영, 최은종, 황성일 △MACC: 김사론, 오진희, 차남준 △MAM: 이종수, 정미영, 채영석, 추기호. 월드미션대학은 1989년 선교신학대학(학장 임동선 목사)으로 태동, 1993년 종합대학교로 개편, 월드미션대학교로 개칭했다. 이후 2012년 제 2대 총장으로 송정명 목사가 취임했으며 2013년 ATIS로부터 정회원자격증을 받았다. (이성자 기자)



제34회 미주장신대학교 학위수여식을 마치고 졸업생들과 교수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제34회 미주장신대 학위수여식

박지에 등 41명 M.Div 수여 총 46명 졸업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제34회 학위수여식을 7일 오전 10시 가나안교회(담임 이철 목사)에서 상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은 박지에 등 41명이 M.Div, 박무수 목사 등 2명이 AST 학위, 그리고 박노현 등 4명이 B.A학위를 받았다.

학생회장 박종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1부 감사예배는 서남노회장 이선영 목사가 기도, 서노회장 김신 목사가 성경봉독했으며 이병진 학우가 특송했다. 이어 KPCA 총회장 노진걸 목사(풀러튼장로교회 담임)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마 7:7-8)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노진걸 총회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종으로 삼으셨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능통하지 못하다. 그러나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 교무처장 구경모 교수의 사회로 열린 2부 학위수여식은 이상명 총장이 학위증서 수여를 했으며, 시상, 격려사, 기념품 증정 등으로 이어졌다. 이상명 총장은 격려사에서 “미주장신대는 하나님일꾼을 양성하는 학교이며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학교”라고 운을 댄 후 “졸업생들은 복음대로 사는 사역자,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도전하는 사역자, 미주장신 동문이라는 자긍심을 늘 간직하고 나아가는 자들 되길 바란다. 또한 영성과 지성의 날개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고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청춘 듣는 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한국 주요교단 교류금지 처분 인터콧 선교캠프 대대적 홍보

지난 2013년 예정합동과 예정합신 등에서 교류금지 및 참여금지 결정이 된 인터콧(대표 최바울)이 최근 2014 선교캠프를 개최하는 홍보를 하고 있다. ‘The Kingdom of God’이라는 주제로 선교캠프를 준비 중인 인터콧은 오는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뉴욕 Clavary Cathedral of Praise에서 그리고 8월 6일부터 9일까지 타코마중앙장로교회에서 개최한다. 인터콧 공문에 의하면 이번 캠프는 어린이, 청소년, 한어권 청년들과 함께 모든 세대의 집회가 한자리에 모여 영어와 한국어로 진행된다. 인터콧은 한국선교협의회(KWMA),

한국전문인선교회(KAT), 한국미전도종족입양운동본부(AAP)의 실행단체로 소개되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이영훈 회장) 인터콧신학지도위원회(신학지도위·성남읍 위원장)의 이단결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지도를 해왔다. 지난 4월 2일 KWMA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KWMA는 인터콧의 지도를 종료한다고 발표하며 인터콧 선교회의 이단성 문제와 관련한 논쟁을 종결함으로, 이슬람권과 미전도 종족 전방 개척 선교에 헌신하고 있는 인터콧 820여 명의 선교사들이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KWMA 교단 및 선교 단체들이 관

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속 지도하며 격려해주기로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선교캠프는 박신일 목사(밴쿠버그리스한인교회), 송병기 목사(뉴욕목양장로교회), 박성근 목사(LA한인침례교회)의 추천의 글이 브로슈어에 실려 배포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을 인정하고 지도를 받아왔던 인터콧, 그러나 지도만 받았을 뿐 개선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아 교류금지처분까지 받았던 만큼, 최근 KWMA에서 성실한 지도를 받고 개선의 여지를 보일 것인가 주시되고 있다. 그러나 위기상황 탈피인지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점으로 남은 만큼 이단대책협의회를 통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준호 기자)



YNOT재단은 커머스에 위치한 청소년 캠프시설인 도로시 커비센터내에 개관한 사랑의도서관 5호점 개관을 축하하는 행사를 갖고 관계자들이 리본커팅을 하고 있다

나성영락교회 ‘사랑의도서관’ 또 개관 커머스 지역...1년6개월 만에 다섯 번째 결실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산하 YNOT 재단(이사장 탐 조 장모)이 ‘사랑의 도서관’ 5호점을 개관했다. 한때의 실수로 범죄의 나라에 빠져 소년원 시설에 수용돼 있는 LA 카운티 지역 청소년들의 갱생을 돕기 위해 한인사회가 추진해 설립된 ‘사랑의 도서관’은 지난 2007년 다우니 소재 로스 파드리노스 청소년 구치소를 시작으로 실마 소재 배리 니콜스 청소년 구치소, 그리고 지난 2012년 산타클라리타 지역의 여성 청소년 수감시설인 캠프 스캇과 캠프 스쿠터 등 3, 4호점이 개관됐으며 1년6개월 만에 다섯 번째 결실을 맺게 됐다. 22일 커머스 지역에 위치한 ‘도로시 커비센터’ 개관식에는 나성영락교회 김경진 담임목사, YNOT 재단 탐 조 이사장과 커비센터 마이크 바렐라 센터장 등 2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로시 커비센터는 어릴 적 아동 학대를 당한 뒤 이로 인해 범죄의 길에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캠프 시설로, 청소년들을 위한 권장도서 500여권이 비치됐다. 특히 센터는 재단이 마련한 도서관 내 재소자들이 책을 읽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장

소와 인터넷 검색이 가능한 컴퓨터를 구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관식에 앞서 마이크 바렐라 센터장은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청소년 재소자들의 갱생을 위해 도서관 및 리빙센터를 마련해준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한다”며 “아이들이 독서를 통해 미래에 대한 생각과 꿈을 키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는 “한인교회가 주류사회를 위해 리더십을 발휘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YNOT재단을 통해 커뮤니티가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채워 나갈 계획”이라며, “도서관 건립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청소년 재소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활용도를 점검하고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LA 카운티 21곳의 청소년 구치소 가운데 현재까지 5곳에 도서관 및 리빙센터 설립을 완료한 재단은 재소자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등 이들과의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의 설립자 김 사무국장은 “사랑의 도서관은 청소년 재소자들의 갱생이 궁극 목적”이라며 “교육부서와 협의회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 등 사랑의 도서관 활용도를 높이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기사판



뉴욕교협건물크로징 실수령액 1백20만불

9일 3차 임실행위, 할렐루야대회 90교회 후원목표

과테말라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 모임
과테말라공립학교 선교협력위원회 모임이 6월 19일(목) 오후 6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미드웨스트대학교 학위수여식
개교 28주년을 맞은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송 박사) 졸업예배 및 학위수여식이 6월 13일(금) 오후 3시 세인트루이스 본교에서 열린다.

뉴저지 뿌리깊은교회 예배당 이전
뉴저지 뿌리깊은교회(담임 조항석 목사)가 지난 1일 주일예배부터 예배 장소를 이전했다.

목회자 "Prepare-Enrich" 상담자격훈련 워크숍
목회자를 위한 "Prepare-Enrich"상담 자격 훈련 워크숍이 6월 30일(월)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뉴저지 패밀리티치 사무실에서 열린다.

뉴욕원로목사회 6월 월례예배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6월 월례예배는 6월 19일(목요일) 뉴욕한인제일교회(담임 박효성 목사)에서 초청했다.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 3차 임실행위위원회가 지난 9일 한인동산장로교회(담임 이풍삼 목사)에서 열렸다.

천2백 달러)와 에스프로 모기지(1만2천 달러), 향후 6개월 건물임대료(1만8천 달러), 시큐리티 디파짓(1만8천 달러) 등을 제외한 1백20만 650달러를 수령했다고 밝혔다.



뉴욕교협 3차 임실행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제 4회 청교도가정사역원 세미나에서 유경옥 전도사가 강의하고 있다.



뉴욕장로연합회가 주최한 장경동 목사초청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분노조절과 부부대화법 멘토링

제 4회 청교도가정사역 세미나, 강사 유경옥 전도사

제 4회 청교도가정사역 세미나 "분노조절과 부부대화법" 멘토링이 청교도가정사역원(원장 유경옥 전도사) 주최로 패밀리티치(원장 정정숙 목사) 뉴욕사무실에서 지난 달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열렸다.

기독교뉴스, 3인3색 목회와 건강세미나

기독교뉴스(씨 존, 발행인 문석진 목사)가 주최한 3인3색 목회와 건강세미나가 지난 5일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에서 열렸다.



3인3색 목회와 건강세미나에서 이순중 목사가 "심장병 및 뇌졸중 견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에서 참석자들의 혈액채취를 통해 개별적 검사를 실시했다. 이윤희 박사는 "Love Your Health"라는 소재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명예로운 간증을 남기라"

뉴욕장로연합회, 장경동 목사초청 조찬기도회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가 주최한 장경동 목사초청 조찬기도회가 지난 4일 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렸다.

하는 사랑하는 것처럼, 선생님, 담임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한다. 노인들은 인생의 선배이기 때문에 존경해야 한다"고 말하며 "나는 천국에 가면 예수님때 정말 간증출전대회를 열겠다. 여러분은 무슨 간증을 가지고 출전하겠느냐? 명예로운 간증을 남기는 장로님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Large directory of churches including: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갯세미네교회, 뉴욕목양장로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뉴욕새사림교회,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뉴욕중부교회, 뉴욕초대교회, 뉴저지성도교회, 리빙스톤교회, 롱아일랜드성결교회, 선학목자교회, 에벤에셀선교회, 에사라교회, 주비전교회, 킨즈교회, 킨즈한인교회, 한마음침례교회, 브라질 새소망교회,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칠레 한인연합교회, 토론토 가든교회,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하와이 행복한교회,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 9. 사모의 사명 가꾸기(3)

사모의 사명이 특별한 것임은 이미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의 사역을 돕기 위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시대에는 사모는 무조건 조용히 있어야 하고 교회 일에 어떤 간섭도 금지되어있었습니다. 사모의 위치가 분명치 않아 어정쩡 애매한 위치에서 억울한 일 속상한 일들이 겹겹이 쌓여왔고 사모의 자리는 물론 이름도 없고 심지어는 존재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기독교가 부흥되면서 사모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여기저기에서 사모를 위한 사역의 종류가 많아지고 사모들이 머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사개발 및 전문분야에 뛰어들 수 있도록 남편의 도움을 받기도 하며 사모들을 위한 세미나 및 교육 현장이 속속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활동을 하므로 교회부흥과 성장에 많은 유익

레스를 받습니다. 성도들의 요구사항에 100% 만족을 줄 수 있는 사모, 천사처럼 고상하고 죄도 짓지 않는 사모, 이런 사모가 되기를 추구하기가 쉽게 되는데 그러기에 사모들은 빨리 지치고 방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야 하기에, 힘들어도 해야 하고 억지로도 해야 하고 아파도 안 아픈척, 피곤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해야 하기에 마침내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 위로의 밤이 생기게 되었고 사모들의 씬터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모들의 잠된 침은 어떻게 하면 얻게 될까요? 진정한 위로를 어디에서 받을 수 있을까요?

다양한 사모들의 모양내지는 섬기는 모습은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위치에서든지 교회를 섬기는 사모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예쁘게 보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사모들이 얼마나 행복하게 이 일을 감당하느냐입니다. 사모들의 얼굴에는 행복이라는 글자가 보여져야 합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 않아도 웃는 얼굴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전성적인 성품에 미루다보면 그렇지 못한 사모들은 항상 얼굴을 찡그려야 합니다. 이런 모습을 성도들에게 보여질 때 또 다른 문제가 꼬리를 물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잘, 잘 못을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앞서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기쁘고 신나는 일인가를 염두에 두는 것이 사모들에게는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금이 사모들을 행복하게 해준다면 사례금이 적은 사모들은 항상 울어야 합니다.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 행복할 수 있다면 성도들이 시험에 들어 나가더라도 사모들은 비상에 걸리게 됩니다. 혹사라도 내 교인이 이웃교회에 가더라도 하면 그날부터 이웃

##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 사모는 뒤에서 돕는 역할 뿐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뤄지는 것

을 주면서 인식의 변화를 가져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사모들은 교회 안에서 활동을 싫어하는 성도도 적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엄밀히 따져서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고 사모는 어디까지나 뒤에서 돕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대표인 목사이지 사모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은 목사와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사모란 이름 자체는 어떤 책임자의 이름이 아닙니다. 리더의 아내를 가리켜 사모라고 부릅니다. 장관이나 사장부인에게도 사모라는 이름이 불리워집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직접 남편이 하는 일에 끼여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남편이 가진 부와 명예를 함께 누리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목회현장에서는 다릅니다. 훨씬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모의 자리입니다.

어떤 목회자의 경우는 사모가 목회에 전혀 간섭하지 않고 따라서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처음부터 이런 환경에 익숙해지면서 별로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런가하면 직접 끼여들어 당회까지 간섭하고 심지어는 당회장 행세도 하는 사모도 있습니다. 이런 목회에서는 대부분이 교회 경제가 여의치 않아 사모가 경제적인 책임을 져야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교회 봉사자들이 부족할 때면 의례껏 사모는 물론이고 목회자 자녀들까지도 아무 이유도 없이 온갖 봉사를 다 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이런 상황을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모에게도 전문훈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모의 영성을 철저히 가꾸는데서 행복한 목회나 나올 수 있습니다. 전문분야훈련이라는 말은 그 분야에 전문성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능숙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지혜도, 인간관계도, 인격도, 재능도 모두 탁월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행복한 것 같습니까? 유감스럽게도 대부분의 경우 사모들은 이런 것으로 스트

교회의 사모와는 원수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얼굴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피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심지어는 성도 한사람을 놓고 두 교회 사모들이 서로 머리채를 쥐고 싸움을 하는 현상도 생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래야만 합니까?

목회자도 그의 아내인 사모도 평생토록 이 일만을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충성스럽게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떠나는 날, 혹은 은퇴를 하고 뒤를 돌아 집으로 가는 그 길은 얼마나 허전할까요? 한평생 한길만을 걸어왔는데... 오직 성도들만을 위해 눈물 흘리며 정성을 쏟아왔는데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하는 목회자의 심정은 어떨까요? 어떤 사모님은 한평생 섬겨온 교회를 떠나면서 금단현상까지 일어나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사모들은 여성이므로 더더욱 힘들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목표를 달성할 때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리스천의 성공의 의미는 내가 목표한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게도 목표가 있고 사모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과정도 모두 그가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대로 되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겐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물라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굴복의 십자가를 멋지게 지고 가신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를 구속하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 매일가정예배

허운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시편16:3)

시편16편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성도의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교회를 가장 사랑합니다. 다윗은 왕으로써 얼마든지 더 좋아하고 누릴 것이 많았지만 성도들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성도와 함께 모든 즐거움을 나누고 성도와 함께 예배하며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분은 존귀한 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

하는 우리는 내 자신의 신분을 존귀히 여기며 옆에 있는 성도들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신분이 존귀한 신분임을 아는 성도는 이제 모든 즐거움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 화 주님만을 섬기리라!(시편16:4)

하나님과 함께하며 교제하는 성도의 특징은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본문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정성을 쏟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이단이나 세상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정성없이 그곳에 빨려들어서 헤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남

는 것은 고통과 괴로움뿐입니다. 빨리 빠져 나와야 합니다. 특별히 우상에 대해서는 그 이름도 우리의 입술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물리쳐야 하는 것은 입에서도 멀리해야 합니다. 웃에 흠이 뵈으면 더러워지듯이 지금 주님 외에 다른 것에 정성을 쏟는 것은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길 것을 다짐합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 수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시편16:5-6)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특징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호와와는 나의 모든 산입과 잔의 소득이 되시고 나의 분깃을 지키신다"(5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모든 분깃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는 성도는 오늘 하루의 삶이 감격스럽고 자유하고 만족하게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후에 나의 기업 나의 분깃 나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분 외에 누가 있습

니까?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가정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든든한 것 많아보여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니 주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같이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우리의 삶이 실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 목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시편 16:7)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훈계를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7절). 특별히 다윗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했는데 "송축할지라"의 히브리어는 최상의 찬양과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되 계속해서 감사의 찬송을 돌리겠다는 강조형 미완어 동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최고의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충고해주시고 조언을 주셔서 나를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훈계"는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를 "성령의 내적조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심기워져서 마음속에서부터 목상하며 결국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 금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시편16:7)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훈계하시고 조언하시는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 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격과 기쁨 속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것입니다. 다윗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에서 보화를 깨내는 마

음으로 상고하는데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되새나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때 정말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없는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말씀이 내 심령 깊은 곳에 새겨져서 나를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그리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 토 주님! 사랑합니다!(시편 16:7)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찬송한 것은 "밤마다" 교훈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문자적으로 밤은 고요하고 적막한 시간을 말하며 상징적으로는 어두운 시기와 고통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고요하고 적막하고 어두운 고통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성령으로 조명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어 결국 안전하게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대해 너

무너무 감사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낮에 눈을 뜨고 땅을 보며 살지만 지혜로운 성도는 밤중에 눈을 감고서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두울 때 죄를 짓지만 성도는 어두울 때 밤마다 나를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과 힘든 그때 성도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납니다. 더 깊은 조언을 듣고 더 깊은 교훈을 듣고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습니다.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날짜 2014년 6월 24일(화, 저녁) ~ 7월 8일(화, 저녁)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장소 미주 갈멜산기도원 본당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문의 (213) 382-1450 www.galmelsan.or.kr

# 나성 동산교회 부흥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갈멜산금식기도원 담임)

날짜 2014년 6월 26일(목, 저녁) ~ 29일(주일, 오전 11:00)

시간 저녁 7:30, 새벽 5:30

장소 나성 동산교회(담임 한기형 감독)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문의 (213) 487-3920

### 우크라이나 이야기들 (5)



오금옥 선교사 (조지아 롬한인교회)

#### 고려인 교육열 높아

우크라이나에는 약 2-3만 명의 한인교포들이 있는데 보통 고려인이라고 부릅니다. 1989년 통계에 의하면 8900명의 고려인 교포들이 있는데 그 후 소련의 해체와 중앙아시아의 정정 불안으로 많은 고려인들이 우크라이나로 유입되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지만 한국의국어대 임영삼 교수와 김석원 키예프대 교수가 조사한 바로는 약 1만5000명에서 3만 명의 고려인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며 우크라이나의 웬만한 소도시에도 고려인 교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19세기말 20세기초 초근목피의 조국을 등지고 두만강을 건너고 고려인들은 러시아 극동지방에 집단 주거지를 이루며 삽니다. 1910년대에 이미 그 수가 10만명을 넘어섭니다. 1930년대 스탈린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약 18만명이 죄인같이 기차 집단에 태워져 중앙아시아의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하하벌판으로 강제 이주당합니다.

1953년 스탈린 사후 공민권이 회복되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민족 특유의 교육열과 근면성을 무기로 좋은 교육 환경과 직장을 찾아 모스크바, 페체르부르크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키예프와 하리코프 등으로 왔습니다. 그들이나 그들의 후손 중에는 아나톨리 김(작가), 울리 김(김유 시인), 빅토르 최(가수), 미하일 박(역사학자), 블라지미르 신(권투선수), 펠리 리(성악가) 등 문화 예술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시대에는 우크라이나가 살기 좋았고 농작물 재배에 소질과 능력이 있는 고려인들에게 드넓은 우크라이나 대평원의 농경지는 희망의 땅이었습니다. 똑같은 씨를 똑같은 땅에 심어도 고려인이 키운 수박이 훨씬 맛있다는 헤르손 수박은 그만큼 부지런한 고려인을 뜻하는 것이겠지요. 헤르손 도시는 우크라이나 남부에 있습니다.

불법체류자도 있지만 학자, 의사, 정치인, 사업가 등 우크라이나의 상류층으로 발돋움한 사람도 꽤 있습니다. 고려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우크라이나의 100여 소수민족보다 교육수준이 월등하게 높다는 것입니다. "고려인이 교육면에서 유대인보다 앞선다"고 얘기하며 지식들은 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합니다. 두 해 전 여름

한국학교 세미나에서 만난 카자흐스탄에서 온 중년여인은 그 나라의 대학교수였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배웠다는 한국어를 더듬어가며 서로 대화를 하던 중 스탈린 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한 고려인의 후손임을 알았습니다.

세브첸코와 윤동주 비교연구로 한국 사람으로는 최초로 키예프 국립대에서 문학박사를 받고 키예프대 한국학과장을 맡고 있는 김석원 교수도 허승철 전 대사로도 우크라이나를 사랑합니다.

#### 인근 지역 문화전달자 역할

남쪽의 비잔틴, 이슬람세계와 북쪽의 슬라브 본토를 잇는 가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우크라이나, 종교적으로도 이슬람, 카톨릭, 정교 문화가 우크라이나 땅에서 교차합니다. 문화 전달자의 역할로 우크라이나는 비잔틴정교 문화를 받아들여 슬라브 지역으로 전파합니다.

허승철 전 우크라이나 대사의 글에 의하면 한국이 2천년동안 약 800회의 외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이보다 훨씬 짧은 기간 동안 1200회 정도 외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이 완전히 외국군대에 정복당한 것은 몽골침입,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 정도이고 그 기간도 비교적 짧았다면 우크라이나는 몽골지배 이후 독립을 유지하며 보낸 기간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아시아, 유럽, 공산세계와 서방세계의 접점에 위치해 주변 세력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아왔습니

다. 허 대사가 만난 러시아 외교아카데미 바자노프 부원장의 말에 의하면 우크라이나의 처지가 이혼은 했는데 생활비는 계속 전남편(러시아)에게 받아야 하는 여자라고 같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독립은 이루었지만 경제적으로 아직 러시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가 후원을 끊는 순간 생존력을 잃어버린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소련 붕괴 후에도 국민의 약 40%가 아직 친 러시아적 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여서 우크라이나는 지정학적으로(geopolitical) 역사적으로(historical) 인종적으로(ethnic)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동과서가 공존하는 나라이므로 대외정책노선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합니다.

#### 천연자원 보유가 오히려 장애

천혜의 땅을 보유한 것이 우크라이나 민족에게 축복으로만 작용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국토가 강이나 산맥 등 자연 방어선이 없이 평원으로 노출되어있어서 많은 국가가 이 땅을 탐을 내, 수많은 외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전세계 흑토의 40%가 우크라이나 경계에 있고 소련시절 연 5천만톤의 곡물을 생산해 소련의 3억 인구를 먹였습니다. 이 나라는 세계 7위 농업생산국으로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의 주생산국이며 수출국입니다.

우크라이나에는 200여종의 광물이 매장돼 있으며 이중 94종은 산업유용광물로 7,700여 광산에서 채굴중 이릅니다. 국내소비 석유,

특해와 특권을 가진답니다. 따라서 5년 중임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엄청난 권력을 갖게 되고 그만큼 대선은 치열하답니다.

박 선교사님의 허술한 교회하나 매입에도 서류문제로 애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공무원들이 일을 아주 느리게 하고 근무시간이 짧아 한가지일로 몇 번을 오게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보유한 땅에 교회를 건축하려는 키예프의 한인교회는 9년째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료나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부패에 염증을 느끼면서도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정치적 심판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사회주의 시대의 근로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는 잘 쉬고 잘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잘살아 보기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외양으로 조용하고 순종적인 것처럼 보여도 자존심이 강한 편입니다. 우크라이나 사람과 문화를 내려 본다고 생각할 때는 강하게 반발합니다. 선교지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학공부, 역사, 문화, 생활풍습 등은 알아둬야, 그들의 정서를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도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1:12-13).

구소련 붕괴 후 대부분의 신생 공화국의 대다수 국민은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고난에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정이 파괴되면서 많은 청소년들이 결혼가정에서 성장하게 되었고 정상적인 가정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청소년들에 광범위하게 퍼진 마약사용 성적문란 등은 부모들의 무관심과 가정교육 부재에 기인한다고 합니다. 신학생 중에 국가 기관에 자주 연락하며 마약과 알코올중독자를 보살피고 도와주는 상담자도 있었습니다. 옛 소련연방 시절 엄격했던 성범죄나 매춘이 급격히 늘어나고 억압되었던 퇴폐문화가 광범위하게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졸자 초임 임금이 5-600달러 정도고 국내에 마땅한 일자리가 없고 임금이 낮기 때문에 5백만명의 젊은이가 유럽 등 해외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송금하는 금액이 전체 국민생산의 8%가 넘는다는 통계입니다. 젊은이들 상당수가 장래희망을 갖지 못하고 자포자기의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불만을 폭발시킬 대상이 필요한데 정치인이나 부유층보다는 방어 능력이 없는 저개발국 외국인이 그 대상이 됩니다.

키예프보다 경제사정이 열악한 지방에서 무작정 올라온 청소년들은 범죄조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스캔헤드 조직에 갈수 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경찰은 낮은 임금으로 경찰직업도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치안 부재로 유색 여행자들이 스캔헤드에게 이유 없이 당한다는 이야기를 딸이에게 격정스럽게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모스크바보다는 날씨도 따뜻하고 물기도 저렴하고 러시아도시보다 훨씬 안전하지요.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 깊이 있고 순화된 국민성을 가진, 가능한 삶의 밝은 면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슬라브적 정서를 간직한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이메일: rome8700@hanmail.net

## 고려인 교육열 100여 소수민족 중 최고...상류층 진입도 지정학적, 역사적, 인종적, 종교적, 문화적으로 동과서 공존



고려인들의 신발. 한국적인 느낌이 남아있다.

위해 열의를 가지고 악착같이 일하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열의가 적고 또 시스템이 받쳐주지 못하는 현실 때문이겠지요. 신학생들과 토론 시간에 그들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예를 들어가면서 말을 시키어도 결코 하지 않습니다. 장래에 무엇이 되겠다는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는 학생들이 왜 말을 안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오랜 사회주의 생활에서 자기의 장래 생각, 꿈, 비전 등을 표현하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현재에 만족하나 지금보다 조금 나은 미래의 상황만 알려줬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힌 느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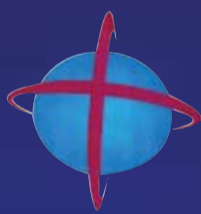
#### 오랜지혁명후 기대 못미쳐

'오랜지혁명 후 국민들은 세 정부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부정부패척결과 부조리한 사회구조의 변화를 원했지요. 학생운동 '포라(pora)'를 주도했던 20대의 젊은이가 청소년부 장관으로, 오랜지혁명에 자금을 낸 30대의 젊은이들이 경제부처로 임명된 사실들은 오랜지혁명 이후에도 부패가 만연했다고 평합니다. 나아가 혁명 동지들끼리 서로 갈등했습니다. 실제로 좋게 느끼는 점은 공황의 부정적인 요소나 교통경찰의 행패는 많이 시정되었으며 치안도 좋아졌다고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계속되는 물가상승과 부정부패는 사라지지 않

가스의 70% 이상을 러시아에서 수입함으로 에너지 의존도가 높지요.

소련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료주의적 행정체제와 관리들의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입니다. 건축물을 하나 지으려면 약 150가지의 허가를 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 관련된 세금종류가 99가지나 되고 영업이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 인허가에는 30가지 이상의 서류가 필요 한데 정상적으로 서류를 준비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담당자에게 2,000-3,000달러를 주면 며칠 만에 허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증은 200달러, 자동차 등록은 100달러, 심지어 일부 대학의 학점도 200달러면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온갖 부정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고위층에서는 자신의 기업 이익을 위한 온갖

우크라이나에는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에게 땅을 나누어주시려고 어느 날 몇 시 하나님의 뜰 안에 모이려고 분부하셨답니다. 모일 도시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에게 땅을 나누어주시고 쉬고 있는데 숲을 좋아하는 우크라이나 민족대표가 할레벌떡 뛰어 들었습니다. "하나님, 숲을 마시다가 늦었습니다. 저희 민족에게도 땅을 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더 이상 줄 땅이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우크라이나 민족대표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애걸복걸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숨을 쉬며 "내가 쓰려고 남겨놓은 땅이라도 주어야겠구나"하고 준 땅이 현재 우크라이나의 대평원이라는 농담이 있습니다. 국토의 95%가 흑토지대의 대평원이고, 절경국으로는 러시아, 체코,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백러시아, 흑해 너머 터키와 바다로 국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세기총)

## The Korean Christian Council of World

### 장석진 대표회장 취임감사에배

일시: 2014년 6월 18일(수) 오전 8시

장소: JJ Grand Hotel in LA

620 S Harvard Blvd, Los Angeles, CA 90005

####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가입 기관 및 단체

- 미주한인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임형대 목사), 사단법인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한영훈 목사), 일본 한국선교사협회(회장 김신호 목사), 하와이 한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황성주 목사), 몽골 기독교총연합회(사무총장 빛발트 목사), 중국 한인선교총연합회(대표회장 박요한 목사), 사단법인 세계복음선교회(대표총재 피종재 목사), 유럽 한인선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요셉 목사), KIMNET선교회(이사장 호성기 목사), 국민비전부흥사협의회(대표총재 손학봉 목사), 홍콩한인교회총연합회(회장 김성준 목사), 기독교한인세계선교협의회(회장 김남수 목사), 세계복음부흥선교회(대표 총재 원팔연 목사), 한국 기독교 단체 총연합회(대표회장 고충진 목사), 재단법인 민족통일선교회(대표회장 신광준 목사), 전문인국제협력단(이사장 이준 장로)

- 주최: 세계 한인기독교 총연합회(대표회장 장석진 목사)
- 주관: 트리샤원 임원리
- 후원: 세계 한인기독교총연합회(회장 박재호 목사), 미주기독교성경교총회(총회장 김병곤 목사), 국제사랑재단 미주동부지회(회장 이병홍 목사), 미주성서화운동본부(대표회장 박희민 목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박우우 목사), 오렌지카운티 교회협의회(회장 민경업 목사), 남가주 한인목사회(회장 정준우 목사),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회장 황동일 목사), 오렌지카운티 한인목사회(회장 김정환 목사), 기독교한인 원로목사회(회장 이태환 목사),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승희 목사),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송정명 목사), 미주성경대학교(총장 류종길 목사), 시우스메이 한인목사회(회장 김병용 목사), 남가주 정로협의회(회장 최형호 장로), 남가주 한인여성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 미주승실대학교 총동문회(회장 유화미), 미주 웨슬리안 연합회(회장 김성대 목사).



장석진 대표회장

# 세계 한인 기독교 총 연합회

333 Arden Avenue  
Staten Island, NY 10312  
Tel : (718)948-0339